

만남

2010 **4**
통권 435호

특집 |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부자, 한경직 목사님

알버커키와 한경직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100-032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69번지
Tel (02)2280-0114 www.youngnak.net

만 남 의 초 점



올해 첫 세례·입교식 모습

지난 3월 7일(주일) 우리 교회 본당에서 이철신 담임목사님의 집례로 세례·입교식이 열려 새로 81명이 세례를 받고 69명이 입교 하였다.

세례·입교식 후에는 정귀식 목사님이 「예수님 생각만 해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고, 이어서 성찬식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진 박흥기 집사 〉

만남

2010년 4월호 제435호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1.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2.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3.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4.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4대 목표

1. 교육
2. 선교
3. 성도의 교제
4. 봉사



본당 앞에서 활짝 웃고 계신
생전의 한경직 목사님

(사진 : 홍보출판부 소장자료)

■ 2010년 4월호 통권 435호

■ 발 행 : 2010. 4. 1

■ 발행인 : 이 철 신

■ 편집인 : 황 찬 홍

■ 발행처 :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100-032

서울 중구 저동2가 69번지

전화 / (02)2280~0114(대)

e-mail/hongbo@youngnak.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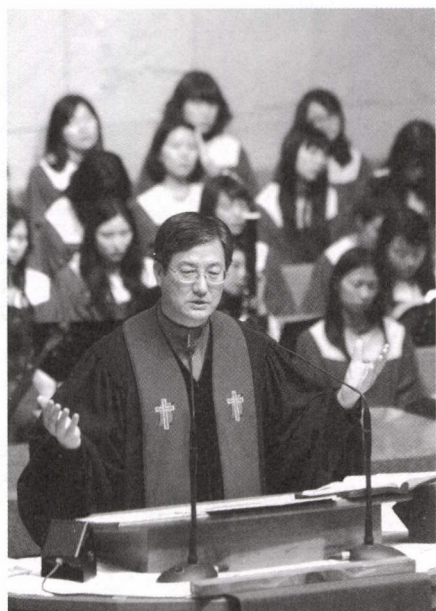
http://www.youngnak.net

■ 인쇄처 : 성원프린팅

이달의 말씀 민족복음화의 헌신자 • 이철신	2
이달의 기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4
특집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그 의미는 무엇인가? • 한승홍	5
진정한 부자, 한경직 목사님 • 한동철	8
알버커키와 한경직 목사 • 이경화	11
독자 시 순결한 믿음 • 한서정	15
교구 추천 간증 예수 믿으세요! • 현정임	16
4월 묵회력	17
영락 선교지 열전 인도 이용범 선교사 부부의 선교 25년 • 정천우	18
중등부 그루터기 간증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루터기 • 박은희	20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루터기 훈련 • 장현화	22
밖에서 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에 대한 추억 • 이선민	24
성경통독 간증 하나님이 보내신 러브레터 • 강연미	26
목회자 칼럼 세 가지 임종 • 김상혁	28
새신자 간증 이렇게 좋고 감사한 것을 나만 안다면 이게 가장 큰 죄 • 차순진	30
서평 '소설 모세' • 김형철	33
전도자 노트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조남식	34
연재만화(93) 사랑의 봉사 • 조위석	36
표어 실천 현장 날개 잃은 천사를 사랑으로 세우는 사랑부! • 장병희	38
하나님의 깊은 사랑, 사랑부 • 류혜선	40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의 부서 '사랑부' • 정은희	42
건강 가이드 빛을 찾아 주는 눈 수술 • 신영주	44
야곱의 우물가 영락 디아스포라 in KBS • 김영미	46
상담사례 성령휘방죄...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의 길이... • 상담부	48
구역모임 교재	50
교회소식	54

민족복음화의 헌신자

한경직 목사님은 복음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철 신 담임목사

금년은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신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나라 잃은 설움을 뼈저리게 겪은 분이었습니다. 일제의 압제 밑에서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일제의 방해로 숭실대학 교수로 진출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일제의 핍박으로 교회에서 쫓겨나서, 보린원에서 생활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공산당의 핍박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공산당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월남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무신론 공산당의 지배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많이 경험하고, 한목사님은 복음으로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과학을 공부하여 민족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으로 민족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민족을 복음화하여, 기독교가 민족 정신의 기초가 되어야, 이 민족,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근본에서부터 변화되고,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 정신이 변화되어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목사님은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대중전도 집회를 많이 열었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복지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군선교에 앞장을 서서 젊은이들을 복음화하기에 힘썼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한목사님같이 민족복음화에 헌신한 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목사님의 민족복음화 비전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개척선교, 복지선교, 학원선교, 군선교를 힘써야 합니다.
 또 북한선교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목사님은 민족복음화의 나갈 방향으로 북한선교를 강조 하셨습니다

한목사님은 1990년에 들어설 무렵에 북한 선교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복음화 사역이 나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남북이 전혀 교류하지 않았고, 강하게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북한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목사님은 사랑의쌀 나누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남한은 쌀이 남아서 쌀막걸리를 만들어 먹도록 장려했습니다. 한목사님은 한 형제, 같은 동포의 불균형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쌀을 지원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쌀 나누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1992년에 템플턴상을 받고 거액의 상금을 북한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우리 영락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교회는 이 기금을 북한선교의 종자돈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면, 온 교회가 정성껏 헌금해서 이 종자돈에 보태어 크게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목사님이 사랑의쌀 나누기운동을 하고, 템플턴상금을 북한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목사님은 북한 공산당의 핍박을 엄청나게 받은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핍박을 한 북한을 위해서 사랑의 쌀을 보내고, 거액의 헌금을 한 것

은 전적인 기독교 정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일을 사랑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영락교회는 한목사님의 북한선교 비전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영락교회 교인들은 한목사님의 북한선교 비전에 공감하여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선교학교를 통하여 북한을 더 잘 이해하고, 북한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교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 탈북자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 북한의 어린이와 환자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목사님의 민족복음화 비전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개척선교, 복지선교, 학원선교, 군선교를 힘써야 합니다. 또 북한선교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 이후에 복음으로 하나된 민족, 기독교 정신으로 기초를 삼은 민족을 꿈꾸며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안남**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 28:6)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죄와 사망권세 이기시고 생명 주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는 십자가를 외면한 적이 많았나이다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는 부인하며
제자들은 도망치고 군중들이 야유하며
주님 곁을 떠나버린 것처럼
저희도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였으나
십자가의 길은 알지도 못한채
헛된 자기 영광만 구하였나이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건만,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처럼
무덤 곁에서 통곡하던 여인들처럼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헛된 무덤을 지켰고
슬퍼하며 두려워하여 마음 문을 닫은채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였나이다

빈무덤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여인들처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말한 도마처럼
눈이 가리어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했던
엠마오 길의 두 제자처럼
저희는 부활의 주님을 더디 믿었나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신 주님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모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한경직,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 위인의 삶 자체는 역사적 평가를 통해 자리 매김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인전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전의 가치는 신변잡기를 나열해 놓은 수준의 스토리 텔링이나 저작거리에서나 쓰임직한 천박한 수사(修辭)로 진술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의 몇몇 출판사에서는 서양 유명 출판사들의 세계 인물 평전 시리즈를 번역하여 출판하고 있다. 독일 로볼트(Rowohlt) 출판사의 평전 시리즈('Rowohlts Monographien')도 한



한승홍 교수가 쓴 책 '한경직의 생애와 사상'의 표지



한 승 홍
장신대 명예교수

국어 번역판으로 출판되고 있다.

나는 1968년 뮌헨(Muenchen)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나면 문화거리 슈바빙(Schwabing)의 자그마한 서점들에 들러 책 구경을 하곤 하는 버릇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볼트 출판사의 평전 시리즈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중에 철학, 신학, 종교학, 교육학 등과 관련된 평전들과 몇몇 분야의 관심 있는 평전들을 읽으며 평전에 담긴 한 인간의 생애와 사상뿐만 아니라 평전을 집필한 저자들의 학자적 글쓰기에 감동받기도 했다.

평전 집필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일뿐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집필하는 인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는 학계가 인정하는 권위자들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었다. 저들은 집필하는 인물의 인간관계 및 사상적 기폭과 흐름을 시대상황에 따라 해석하기도하고, 개인사의 이면을 수집한 증빙자료들(사진, 서간문, 일기, 원고 초안, 논문 초고, 수기 노트, 메모 쪽지, 강의안, 관련 학계의 학자들로부터 채록한 증언과 대화록, 낙서 등

등)에 근거하여 진술하기도 하며, 사상의 원류와 그 영향권에 대한 역사적 진단을 통해 한 인물의 사상사적 의미를 평가하기도 했다. 이 평전들은 주문만하면 어떤 분야의 전기나 회고록, 평전 등도 며칠 내에 써주는, 글쓰기가 호구지책인 대필 작가들에 의해 급조된 상품들과는 격이 다를 뿐 아니라 접근방법이나 의도 자체가 천양지차의 이질감을 보이고 있다.

한경직 목사 - 예수를 닮은 인간

1992년 4월 29일 한경직 목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다. 90세의 노인이 된 그때까지도 그에 대한 평전은 물론 학술적 가치를 지닌, 제대로 된 전기조차 한 권 출판된 적이 없었다. 이것은 그의 생애와 사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해석-이해-평가하여 자리매김하는 것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경직이라는 실체를 평전으로 역사화하는 것 자체에 한국 지성의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한경직의 생애와 사상을 집필하려면 저자 자신에게 쏟아질 비판과 불명예스런 일까지도 당할 각오를 하고 글쓰기를 시작해야 한다.

기독교 보수주의 집단 일각에서는 그의 신사 참배 문제를 끈질기게 들먹이며 그의 성직자상을 훼손하려 하고, 기독교 진보주의 집단 일각에서는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불순분자로 매도하는 듯했던, 그리고 사회구원보다는 개인구원을 강조하며 민중신학을 외면하는 듯했던 그의 행태를 힐난하며 인간 한경직을 매장하려는 기세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평

전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어디 쪽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돌팔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했다.

한목사의 템플턴상 수상을 계기로 기독교 월간지 『목회와 신학』 편집장이 한경직 목사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 3~4회 정도 원고를 써달라고 나에게 청탁을 했다. 그 당시 나는 그 잡지에 1990년 1월부터 <한국신학사상의 흐름>이라는 연재로 이미 고인이 된 한국 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논문을 매월 게재하고 있었다. 생존 인물에 관한 평전을 쓴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으나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정도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으니 한국 기독교계의 정사라며 청탁하는 편집장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다.

한목사에 관한 원고는 그 해 7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게재되었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후 1993년 1월에 『한경직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이 나오자 어떤 교수는 내가 영락교회의 연구비를 받아 이 책을 썼으리라고 단정하며 “이 책은 영락교회와는 무관하게 집필되었다”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한목사님 가족들 중에는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을 썼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장로님 한 분은 한목사님에 관한 평전이 나왔다는 알림은 물론 판매조차 금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부족하게나마 평전의 형식을 빌려 한경직 목사를 20세기 한국사회와 교회를 건인했던 기독교의 청빈한 목자로 의미화한 것으로 위로를 삼곤 했다. 이 책은 2007년 6월 『한경직 - 예수를 닮은 인간, 그리스도를 보여준 교부』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재판되었고, 2007년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로 선정되었다.



절식헌금을 하고 계신 한정직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는 잘 알지 못한다. 목사님과 나는 성(姓)만 같을
뿐 고향도 다르고, 친척지간도 아니다. 그 분을
만난 것은 영락교회 어느 분이 “목사님이 한 교
수님의 책을 읽고 싶어 하신다. 몇 권 보내드렸
으면 좋겠다”고 하여 1993년 5월 어느 날 남한
산성 기슭의 거처를 방문하여 책을 출판하게 된
과정을 말씀 드렸던 것이 처음이며 마지막 만남
이었다. 목사님은 책을 천천히 넘겨가며 몇 군데
를 읽어보시고는 덕담을 해주셨다.

한정직 목사 - 한국 기독교의 상징

나는 종종 ‘한정직 = 한국 기독교의 상징’, 이
런 등식으로 그의 인물상을 그려보곤 한다. 부활

절이나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때면 영락교회와
명동성당의 예배가 TV로 중계되고, 한 목사님
과 추기경의 모습이 한국 기독교와 천주교를 대
표하는 아이콘처럼 공인되던 때도 있었는데, 지
금은 개신교를 대표할만한 상징 인물이 없기 때
문에 기독교 연합기관의 대표나 총무, 때로는 영
동하계도 기독교 봉사기관 운영자의 얼굴이 한
국 개신교를 상징하는 인물처럼 일반인들에게
비춰지곤 한다. 교회도 쇠약해가고, 개신교를 견
인할 인물도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한국 교회는
그래서 더욱 한정직 같은 목자(牧者)를 갈망하는
지 모른다.

“한정직,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예수를 닮은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생활을 하라!”는 묵언의 외침이 용해되
어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독교인이면 기독
교인답게, 성직자면 성직자답게 살라!”는 명령
이 그를 상징하는 의미로 함축되어 있다. 세속주
의에 물들어가며 신앙을 잃어가는 기독교인들,
성직자들의 배금주의와 권력욕, 성직을 직통 세
습하거나 우회적으로 변칙 세습하는 행위, 교회
사유화와 헌금 유용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비성서적 행위들이 안티(anti)-기
독교를 양산한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한정직
목사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그를 기리며 ‘한
정직’이라는 상징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를 되새겨보았다. **만남**

진정한 부자, 한경직 목사님

진정한 부자는 소유한 물질의 분량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다.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본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 없이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수 없이 많은 일을 하신
풍요한 부자이셨습니다.



한 동 철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만난 적이 없는 분에 대한 글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 관련 원고청탁을 영락교회에서 받고는 당황하였습니다. 필자는 모태신앙이나 나이롱 집사여서 교회의 발간물에 글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필자가 TV방송에서 유명한 종교지도자들을 거명하면서 진정한 부자들이라고 한 적이 있는 것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목사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필자의 이모부께서 이북에서 한목사님에게 지도를 받으신 것이 먼 인연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이모부 목사님께서 1970년대에 부산에서 목회하시면서 몇 번 영락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였을 때 필자가 영락교회 본당에 발을 몇 번 들여놓았을 뿐입니다.

부자학으로 분석해 본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

필자는 부자를 가치창출(value creation)과 사회만족(social satisfaction)을 하는 분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악의 화신이었던 록펠러가 가난한

분들에게 기부를 하겠다고하자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는 그들의 말에 록펠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금전가치로 환산하여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380조에 달하는 재산의 대부분을 죽기 직전에 사회만족에 모두 사용하여서 현재는 선한 부자의 표상으로 호칭됩니다.

필자는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두가지 사실들을 이모부 목사님과 영락교회 신도가 아니나 영락기도원에 열심히 다니셨던 장모권사님으로부터 2004년도 이전에 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필자가 만든 부자학에 적합한 분들 중에서 한분으로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들은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한목사님께서 평생 본인의 성함으로 된 예금통장을 가지신 적이 없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월드비전을 설립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목사님께서 해외에 나가실 때 마다 받으시는 사례금들을 그 교회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락경로원 신축공사 기공식에서 테이프 커팅하시는 한경직 목사님(중앙)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숫자보다 예금통장의 숫자가 서너배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어느 부자는 102개의 통장이 있고), 평생 본인소유를 가지시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섬기는 작은 교회의 당회장님이 오늘 읽으신 성경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사도행전 2장 45절)”에 적합한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신과 물질의 혼연일체를 추구하시는 부자들은 경호원 없이 걸어 다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부자들이 꺾고마한 물질을 가지고서는 아등바등 숨겨두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빌딩에 세든 가난한 이웃들에게 월세 한 달 밀렸다고 욕박지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십의 이”를 바쳤더니 너무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경험해서 그 이후는 아예 절반을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인류역사상 가장 축복받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이 된 기독교의 정신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같은 등급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거미줄 같은 세움이 지키는 천평이 넘는 집안에 누워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자들을 우리는 수 없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불우이웃돕기에 비교적 큰수표를 내고나도 마음이 답답한 부자들도 또한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더 달래보려고 외제차를 타고 교회에 나와서 “가진 것 팔아서 이웃을 도우라”는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안들어오면서 주차관리집사가 실수로 내 차를 벽에 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아무런 마음의



야외에서 성경을 읽고 계신 한경직 목사님(왼쪽 두번째), 오른쪽 첫번째는 최창근 원로장로님

거리낌 없이 하게되면 구태여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개의 대여금고속에 많은 물질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심이 강한 분들이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되면서 내 통장속의 돈이나, 내 이웃 주머니속의 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맨 마지막 계명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서도 “김집사는 펀드 해서 대박 났다는데, 나는 반토막나고”하는 질투심을 보이는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을 가장 잘 피하는 방법은 “부자가 가진 것을 사회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회복지기관인 월드비전의 창립을 한목사님께서 주도하셨다는 사실은 목사님 본인이 지향하고 있었던 부자의 가치관이 사회만족(social satisfaction)을 향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1950년

대에.

필자가 매일 여섯 페이지씩 읽는 영어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에서 사회로 향하는 정신”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 개이고(heavens), 지구는 하나(earth)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천하신 한목사님이 계시실 최우등 등급의 천국과 우리가 갈 천국의 등급은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교회의 부흥회에 성경듣고 참석하였으나, 가난

하여서 헌금 못했던 것을 조금 전에 기억하였습니다. 큰 교회에서 원고를 써달라고 하였으니, 원고료도 많이 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높은 등급의 천국으로 향해보려는 안간힘을 쓰고 싶습니다. 원고료를 한경직 목사님관련 사업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원고료와 동일한 액수의 제 개인 돈도 같이 기부하겠습니다. 30여년 전에는 가난한 학생이어서 헌금 안내고 라면 사먹었는데, 이제는 눈만 뜨면 물질의 흐름이 보이는 부자학 교수가 되었으니 그때 못내었던 것을.

수천번을 해도 한경직 목사님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진정한 부자를 아주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면, **안녕**

알버커키와 한경직 목사

이 글은 미국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 소재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시무장로인 이경화 박사께서 2010년 1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소식지에 기고한 글이다. 이경화 장로는 2009년에 한경직 목사님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본 교회 한경직 목사기념사업회에 제공하였다.



이 경 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시무장로
공학박사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존경받아 온 서울에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직목사는 한국사회에 너무도 잘 알려진 목사님이지만, 그가 1930년경 그의 미국 유학 시절에 뉴멕시코주 알버커키(Albuquerque, New Mexico)에 2년간 계셨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듯 하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이 이곳 알버커키에서 폐결핵 환자로 프레스비테리안 요양원 (Presbyterian Sanatorium)에서 투병하고 계신 동안이었는데, 그 분이 여기 계셨던 사적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으나, 최근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설립100주년을 기념하는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100년사 (The First 100 Years Presbyterian)”란 책을 편찬한 모 팔머 (Mo Palmer) 여사를 만나게 되어 몇 가지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뉴멕시코주립대학 (University of New Mexico)의 도서관 자료를 통해서도 몇 가지 자료를 입수했다. 1930년경의 알버커키 상황과 이곳에 한국인으로서는 아마도 최초로 왔을 것으로 보이는 한경직목사의 그때 상황을 최근 입수한 자료에 근거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유학생 한경직의 투병

영문판으로 발행된 한경직목사님의 전기 책 「3

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소서! (Just Three More Years To Live!)」와 우리말로 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란 책에 의하면, 한경직 목사는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 방위량(Blair)선교사의 격려와 윤치호선생의 도움으로 미국유학을 오게 되었다.

1925년 그의 나이 24세때 처자를 두고 부산항을 떠나 요꼬하마로 가는 배를 타면서 미국유학의 길이 시작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뒤 켄사스로 와서 엠포리아 대학에 학사과정으로 들어간 후 일년 뒤 졸업하고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 석사과정으로 들어갔고, 1929년 석사를 마치고 곧 예일대학으로 가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려고 했었다.

그의 뜻대로 되었다면 그보다 4년 앞서서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예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연희전문학교의 교수가 된 백낙준박사와 같은 길을 갔을지도 모른다. 사실 한경직은 그때까지도 목사가 되겠다는 꿈은 없었고 교회역사를 가르치는 신학교수가 되려는 꿈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그 꿈이 깨어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게되는 계기가 된 것이 그

의 폐결핵이었다.

유학생할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 조달을 하느라고 밤낮 없이 과로했던 탓으로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다. 미시간주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결핵 3기의 환자를 그곳에서는 치



알버커키 중앙로 옆에 세워진 프레스비테리안 요양원 (1921년경 사진으로 추정함). 현재의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의 북쪽이 된다.

료하기 어려우니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 있는 프레스비테리안 요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이곳 쿠퍼원장에게 소개를 해주었고, 또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도 추천의 편지를 원장에게 보냈었다. 요양원의 쿠퍼목사는 목회자 환자를 위한 방 하나를 비워 유학생 한경직을 받아주어서 1929년 알버커키 최초의 한국인으로 그는 기차를 타고 내려와 도시 중앙로 길가에 있는 요양원에 무료환자로 입원한 것이다.

그 당시 미국 내의 일반적인 요양원 환자의 통계를 보면 폐결핵 환자의 50%는 요양원에 입원해도 살아서 나오질 못했다고 하니 한경직은 절망에 가까운 심정으로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아내, 딸에게 유서로 편지도 보냈다고 한다.

3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을 섬긴다는 명목아래 자신의 야망과 명예를 추구해온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기도를 했다고 한다. “3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고 죽겠습니다.”란 서원기도를 한 것이다.

기적이었다. 미시간 주 벵틀크릭 요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환자가 이곳에 와서는 치유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치유가 의사의 기대만큼 빠른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1930년 9월 요양원에서 발행

한 뉴스레터 “요양원 소식 (The Sanatorium Quarterly)”에서 이런 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네 사람을 도와달라는 호소문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한경직 환자를 얘기하고 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우리 요양원에 요양 중인 한경직은 한국인으로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그의 고국에 선교사로 가고자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치료 예정기한이라합니다. 담당의는 한경직의 치료를 위해 6개월을 더 머물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경직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칭찬하는 신실한 청년입니다. (Here is a young man, a Korean, a graduate of Princeton Seminary, planning to return to his people as a missionary. He had been a patient in our Ministers Cottage but his

term expired and there was a long waiting list for places in the Cottage. His doctors want him to stay on another six months. He is a consecrated young man, highly thought of by all and a splendid influence)

그가 환자로 있으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젊은 신앙인이었음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의사의 진단은 6개월의 연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1년정도 더 체재해서 1931년 퇴원을 했고, 추가로 6개월의 요양을 콜로라도 덴버에 가서 보낸 후 1932년 귀국한 것을 보면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한경직 목사의 자서전에 보면 이곳 요양원에 계셨던 분 중 특별히 감사해야 될 분으로 두 분의 이름이 나온다. 한 분은 그를 입원시켜준 원장 쿠퍼 목사였고, 또 한분은 친절했던 간호원 메리언(Mrs. Marion Van Devanter)이다. 이번 사료를 제공해주신 모 팔머 여사를 통해 메리언은 간호사가 아니고 원장의 비서이면서 사무직으로 봉사했던 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벤 여사(Mrs. Van)로 널리 알려진 이 분은 폐결핵 환자였던 남편을 따라 이곳에 왔으나 남편이 투병에서 이기지못해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이곳에 남아 평생을 요양원을 돕고, 특히 환자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70여년간 하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주일엔 교회성가대에서 봉사했고 주중에는 요양원의 일반 사무직 외에도 환자의 식탁에 짧은 성경구절을 쪽지에 적어 올리기도하고 환자에게 정신적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일에 크게 노력했다고 전한다.

영락교회 목회와 템플턴상 수상

환자 한경직은 폐결핵에서 완쾌되어 1932년 귀국하여 평양으로 가서 송인상업학교 교목이 되었다가 신의주 제2교회로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되었고, 해방후 월남해서 영락교회의 전신인 베다니교회를 세우시고 27년간 시무하셨다. 대광중고등학교를 세웠고 숭실대학을 재건했고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초교파적으로 하는 일을 성공시켰고 홀트 양자회, 세계선명회, 영락모자원 등 그 분이 한국사회와 종교계에 기여한 사실은 너무나 많았다.

그 많은 업적의 결과로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템플턴상을 독일 베를린에서 수상하셨다. 한경직 목사 이전에 이 상을 수상한 사람으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Billy Graham:1982),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1973)가 포함된다. 3년만 더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한경직목사님은 2000년 4월 19일 98세의 일기로 소천하셨다.

요양원 소식지(The Sanatorium Quarterly)에서 또 한 가지 자료를 모 팔머 여사가 발견했는데 1953년 3월호 뉴스레터 기사로 제목을 “우리의 한경직과 빌리 그레이엄(Our Kyeng Chik Han and Billy Graham)”으로 달아놓고 쓴 글인데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원문도 옮겨본다.

「장로교인의 생활(Presbyterian Life)」이란 잡지의 최근 호에 발표된 뉴스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도 이곳에 환자로 계셨을 때의 기억이 생생한 한경직 목사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한국 집회를 도와 통역을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이번 한국 집회는 큰 감동이 넘치는 일이었을 것



(왼쪽)요양원 환자로 있을 때의 청년 한경직. (중앙)요양원 원장 쿠퍼 목사. (오른쪽)요양원 원장실의 비서이면서 사무직을 맡았던 벤 여사. (사진제공: 모 팔머 여사)

으로 믿습니다. (이하 생략)

We are delighted to see in a recent issue of that our former patient (whose days with us are still very bright in our hearts) was the interpreter for Billy Graham on his recent visit to Korea. We know that this was a thrill for both of them, and we rejoice that Mr. Han, together with many other Koreans, had fellowship with this man of God. We know it was a time of inspiration for all.'

오늘의 알버커키와 우리들

한경직 목사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이 그가 가장 약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고,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닌 이곳 알버커키의 프레스비테리안 요양원에서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도 같이 그가 가장 약할 때 그는 강해져서 건강만 찾은게 아니고 평생 동안의 어려운 묵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힘을 알버커키 요양원 병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었다. 그 분이 다녀간 지 80년이 된 오늘 이곳 도시는 인구가 그 때에 비교할 때 30배가 넘는 도시로 변했다.

그 당시엔 한국인은 그 분 혼자였으나 이제 이곳에 사는 한인이 천 명이 넘고 한인교회도 여럿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수 십년 동안 이 도시에 잠시 살다가 간 한인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이곳 알버커키에서 과연 한경직 목사님 만큼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큰 전환의 계기로 삼은 한국인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게된다.

오늘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80년 전 유학생 한경직에게 축복의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내리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2010년 새해를 맞이하자고 권하고 싶다. 끝으로 프레스비테리안 요양원 자료를 제공해주신 모 팔머 여사와 한경직 목사님의 관련 자료를 영락교회에서 입수해서 제공해주신 최성원집사께 감사한다.

영락교회를 섬기다 오신, 본 교회의 최성원 집사는 현재 뉴멕시코주립대학 약학대학에서 폐결핵 연구를 하고 있다. **안남**

순결한 믿음

한 서 정 집사
노원교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주는 잔잔한
호수와 같으시며
엄동설한에 따뜻한
온돌방과 같으시도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여
꿀송이보다 더 단
예수님의 사랑이여
이른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 방울보다
더 순결하시도다

향기로운 찬송을
부를 때에
천성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때르릉, 때르릉!

“누나, 내가 중대부속병원에 입원했어. 병원에 좀 와 줘요!”

황급히 병원에 찾아가보니 남동생이 급성 장출혈로 입원하게 되었고,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쌍한 동생을 살려 주세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 아닙니까?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47세의 젊은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2학년 두 딸과 아내, 모친, 남동생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습니다. 수술하기 전 병실에 찾아가니 성경책이 머리맡에 놓여 있어 반가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찍은 가족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필자, 가운데 어머니, 우측 동생)



현 정 임 권사
강남교구

동생의 친구가 병문안와서 갖고 있던 성경책을 놓고 갔다는 말을 전해듣고 주님께서 동생을 사랑하심을 믿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하여 영락교회로 안내하였으나 천주교에 등록하였기에 오랫동안 동생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병상에서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동생이 서슴치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두 번째 진단을 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믿음으로”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이야! 다음날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며 5시간을 기다렸으나 시간은 자꾸 지체되더니 오후 8시경 마지막 모습을 보라는 통보였습니다. 2004년 11월 4일 마른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 악몽의 시간이었지요. 한가닥 위로가 된다면 동생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믿음입니다. 이제 두 딸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조카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재학 중이고 작은 조카는 올해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2년여 동안 몹시 쇠약해지셨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께서 35년동안 일연 종법에 귀의하시어 영적인 갈등이 심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를 배척하며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남동생이 어머니를 간병하며 힘겹게 지내시는 형편을 안타까이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구원되시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어야 끝이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저의 뒷모습을 보시고 회심의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면 딸이 믿으라는 예수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눈물의 감사기도를 드리며 집안에 있는 모든 종법서적 및 관계되는 집기들을 몽땅 들어내어 불에 훨훨 태워 버렸습니다. 모든 사단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2006년 4월 30일 영락교회 등록하시고 2007년 3월 4일 흰색 까운을 입으시고 영광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음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 찬양하시며 휠체어에 의지하고 주일에 교회 가시는 변화된 어머니

을 뵈 때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한이 없으신 사랑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만남**

4월 목회력



4일(주일) 부활주일

찬양예배, 젊은이예배 성찬

11일(주일) 제직회

18일(주일) 한경직목사 10주기 추모예배

새가족 환영회

22일(목) 서울노회

23일(금) 심방준비회

25일(주일) 한경직목사 10주기 추모음악회

사회봉사주일

인도 이용범 선교사 부부의 선교 25년 천국의 소꿉장난

청소년기와 신학공부

한 소년이 있었다.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뒤로 하고 중학교에 입학했던 그는 실로 엄청난 독서량을 소화해 내고 있었다. 조숙하고 주관이 강했던 그는 청소년기의 아픔을 일찌감치 앓고 있었다. 사람에 대한 실망, 자신에 대한 실망……. 하나님을 몰랐던 그는 죽는 길만이 실망을 극복하는 유일한 탈출구라 생각하고 있었다. 동경미술대학 출신 국전심사위원인 부친 이달주 화백의 요절로 고3 학생 이용범은 동생들과 함께 세상에 홀로 서야 했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인 가보지 못한 미지 세계에 대한 동경은, 결혼이 선물해 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으로 인해 그가 찾고자 했던 미지의 세계가 하늘 복음의 세계임을 알게 된다. 늦은 신학 공부, 그는 선교사가 되었다.



25년간 인도 선교사역에 헌신한 이용범 선교사를 위해 본 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다.



정 천 우 안수집사
선교부 해외선교팀장

인도 파송, 신수비를 모아 선교관을...

1985년 41세, 불혹의 나이를 넘기자 그는 인도로 파송 받는다. 일찌감치 인도 선교사로 활약하였던 김영자 선교사가 세례 줄 수 있는 교역자를 찾는 상황 속에서, 영락교회 선교부 전도사였던 그는, 부서의 권유를 받아 아내와 함께 인도로 향한다. 그의 꿈 브라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로 바뀌었다.

거리를 배회하는 소 떼와 소란스런 사람의 거리, 주목받지 못한 질고의 수많은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공간을 메우고 다시 사라지는 인도. 가난, 그리고 비웃기에는 너무도 뿌리 깊은 그들의 종교와 계급…….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도와 수 없는 수도자들이 있어도 인도가 깨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인도, 그 한가운데서 그는 갈증을 느낀다. 인도 시회를 알기 위해 인도 남동부 타밀 나두주의 주도이자 해안도시인 첸나이에 있는 로올라 칼리지(Loyola College)에서 사회사업(지역개발)을, 인도 기독교를 알기 위해 인도 데칸고원에 위치한 카르나타카주의 주도 벵갈로에 있는 유티씨(United Theological College)에서 교회사를 공부했다.

신수비 중단이라는 아픔을 낳기도 했던 인도 선교를 향한 공부 중에서 그들은 최소 소비 생

활을 유지한 기숙사 생활을 통해 신수비를 모아
학업 과정 중에 벵갈로에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려
2001년 지금의 그리스도은혜선교관을 세운다. 선
교관 바로 앞에 힌두 사원을 지으려는 힌두교도의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기도 요청을 전해들은 제
3여전도회원들을 비롯한 영락교인들의 기도는 이
루어졌고 지금은 선교관 앞마당이 되어 있다.

합법적인 인도 선교가 가능하도록 법인 그리스
도 은혜선교회를 만들어 정부에 등록했고, 모든
관련 재산을 이 법인에 소속시켜, 다수가 힌두교
도이기에 핍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도에서 선
교가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없
는 힌두교 깡패들의 공갈과 거둬드는 파괴 속에
서도 선교관을 세운 끈질긴 그였지만 가까운 이
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선교의 길은 그를 외롭게 했다. 그의 기도와
말은 종종 눈물에 멈추어 서곤 했다.

세계선교의 흐름, 국제문화선교원 건립 진행

선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 은혜선교
회가 있는 벵갈로, 2만여 평의 부지 위에 선교사
훈련기관 건축이 일부 진행 중인 호수르, 2천여 평
의 부지에 주민 요구에 따른 직업교육과 영어교육
이 교회 사역과 더불어 진행되게 될 사바망갈라,
벵갈로 중심 빈민지역 아네빨리야. 오늘도 그들의
몸과 마음과 기도는 이 사역지 위에 머물러 있다.

그는 21세기 선교 주역과 중심이 미국에서 중
국, 인도, 아랍권 순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고 있
다. 이에 따라 그는 이들 각 지역에 파송될 선교사
를 훈련할 국제문화선교원을 호수르에 세우고 그
안에 새천년제자훈련연구원, 선교전략연구원, 문
화종교연구원 등을 두어 주님 주신 선교소명을 효
과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벵갈로 '그리스도은혜선교관'에서 인도 어린이들과 함께한
본 교회 대학부 학생들

선교 25년, 그들은 미래의 꿈을 이룬 선교사들

그는 사반세기 25년간의 그들 부부의 선교사역을
놓고, 천국의 영원한 삶의 모형을 이 땅 위에
만들어 가는 '천국의 소꿉장난'이라 했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소꿉장난 놀이터에
남아 있다. 영락교회 대학부 학생들은 지난 2월
그곳을 찾았다. 엄상일 교육전담목사의 장차 있
게 될 선교사 은퇴를 염두에 둔 기도 속에 그들 부
부를 둘러섰던 학생들은 모두 눈물짓고 있었다.
한 학생의 고백처럼 위인전 속의 인물이 현실 속
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그들 선교사 부부의 삶이
감동스럽고 감사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약속의 세계를 믿음으로 보았던 아브라
함.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으로 보았던 모세. 그들
모두 약속의 세계에 발을 딛지 못했어도 그 지경
을 보았던 꿈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용범 선교사
부부 그들도 그들이 약속받은 세계를, 가나안 땅
을 이미 믿음과 눈으로 보고 있기에 행복하다. 천
국의 소꿉장난은 지속될 것이다. 믿음이 현실이
되고 보는 지경이 밟는 지경이 될 것이다. 선교사
님 부부를 지켜 본 자로서 두 분께 깊은 존경과 사
랑을 전한다. **만남**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루터기



박 은 희 권찰
고양·파주교구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며 큰딸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천국이 진짜 있어? 엄마는 천국이 있다고 진짜 믿어? 나는 못 믿겠어... 믿어지지 않아...”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한 그루터기 훈련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나를 잘 자라고 있다고 믿고 있던 딸의 질문에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느새 천국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큼 딸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고, 아이가 자란만큼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찬양대를 거쳐 소년부와 중등부 앙상블까지 딸아이는 신앙의 큰 굴곡 없이 편안함 속에서 잘 자라 주었고, 사춘기



그루터기 훈련중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

또한 심하게 겪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던 터라 그 질문 하나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딸아이가 그루터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던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 좀 더 깊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 한편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8주간이라는 기간 동안 토요일마다 매주 5시간씩 받아야 하는 교육이 중학교 2학년인 딸에게는 부담으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을 빼앗기면 당연히 성적도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염려와 걱정을 뒤로한 채 그루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개강예배를 드리고 부모 교육과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외부 강사님들의 여러 강의와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부모로서 저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 속에서 아이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감으로 장

점보다는 단점을 찾아 눈에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상처내기에 바빴고, 아이가 책상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오로지 학습적인 것, 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지혜 없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며, 나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도와 믿음의 신앙을 대물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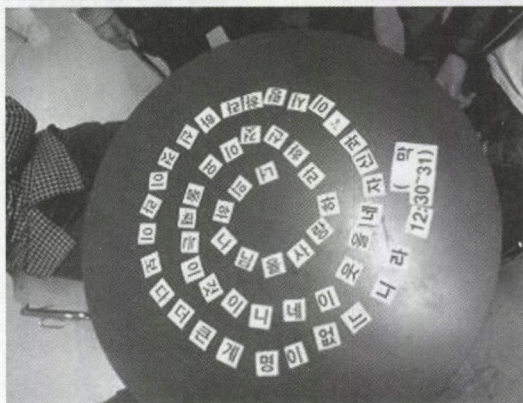
회복과 감사로 마무리하게 된 그루터기 훈련

그렇게 회개의 시간이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다시금 깨달으며, 아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공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장점을 찾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해 주려고 노력함으로써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말하는 말투조차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와 칭찬에 인색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 사랑을 담아 전하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관점 하나가 바뀔수록 모든 상황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루터기 시작할 때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했던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며 시작한 그루터기는 저 자신을 변화시키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루터기 훈련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엄마 앞에



그루터기 일곱번째 시간
조별활동 시간에 행해진 예배에 대한 말씀찾기

서 늘 작아지고 주눅 들어있던 딸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또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과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려고 그루터기로 인도해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니 미리 예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날 아이에게 상처 냈던 죄를 또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딸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남**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루터기 훈련



장 현 화
중등2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토요일, 주일이면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소년부 때까지는 성가대를 해야 된다는 목적만 가지고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다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토요일, 주일마다 찬양대를 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고가던 제가 중등부에 올라와서 여름성경학교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나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여름성경학교 저녁집회 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 예수님께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때부터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더 관심을 가지고 깊게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루터기를 통한 변화

1년에 한 번도 안하던 Q.T 를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조금씩 하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할 수 있게 저를 인도해주셨습니다.

10월 24일 그루터기 첫 시간, 저는 박미현 선생님과 저희 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남이라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박미현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말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루터기 첫 시간은 자기소개와 비전에 대해 간단하게 나누고, 두 번째 시간의 주제가 '구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구



그루터기 두 번째 시간 : 조이를 정하던 시간. "바람조"는 바람처럼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뜻의 조이를

원에 대해 자세한 의미도 몰랐고,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루터기를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간증문 쓰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써야할지 망설였습니다. 딱히 간증이라고 할만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박미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간증문을 쓰면서 저의 예전 모습과 지금 모습의 달라진 점을 알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예배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옆친구와 떠드느라 바빴던 예전모습이 중등부에 올라와서는 예배시간에 전도사님 말씀에 귀기울이고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그 이후 시간에는 Q.T,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말씀 등등에 대해 배웠고, 그것들을 배우면서 더욱 참된 예배를 드려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그루터기를 시작할 때는 시험기간 중에 있어서 토요일날 그루터기를 매주 나와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한주 한주 지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루터기 오는 토요일을 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험때만 되면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했던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안해지는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자 장현화 학생과 어머니 박은희 권찰

니다.

그리고 어느덧 12월 19일 종강예배...

그루터기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아쉬웠습니다. 2박3일 제주도 아웃리치, 제주도 중엄마을을 전도하면서 전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되었고, 저와 친구들이 전도했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 전도와 집회, 소그룹 모임,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하나 품어주시고 기도하시며 격려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 그루터기 동기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특히,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남**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에 대한 추억

나는 1994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조선일보의 종교담당 기자로 근무했다. 도중에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1년 반 정도의 공백이 있었지만, 만 8년 동안 우리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일간지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한 분야, 그것도 '골치 아픈 분야'로 알려진 종교담당을 맡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나는 종교 이외에도 학술·출판담당 기자와 논설위원으로 일했지만 아직도 회사 안팎에서 '종교기자'로 많이 기억되고 있다.

종교담당기자 시절에 만난 한경직 목사님

종교담당 기자 시절 개신교 뿐 아니라 불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 여러 종교의 국내외 현장을 바쁘게 찾아다니느라 젊은 열정을 불태웠던 기억이 새롭다. 그 중 영락교회에 대한 내 기억은 주로 영락교회의 설립자인 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것이다.

내가 종교담당 기사를 시작할 무렵은 이미 한 목사님께서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신지 20년이 넘는 시점이어서 현역 시절의 그 왕성했던 활동을 직접 취재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공산치하를 피해 월남하신 후 1950년~70년대 어려움 속에서도 힘차게 뻗어가던 한국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시던 이야기는 한 목사님의 후배인 원로 목회자들과 고참 종교담당 기자들을 통해 많



이 선 민
조선일보 문화부장

이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신교계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큰 어른으로 널리 존경받고 있던 한 목사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르게 됐다.

한경직 목사님을 처음 뵈는 것은 종교담당 기사를 시작한지 1년쯤 지난 1995년 3월이었다. 한 목사님께서 당시 조선일보사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이승만과 나라세우기' 특별전을 관람하러 오신 것이었다. 당시 94세의 고령이었던 한 목사님은 대외활동을 삼가고 계셨지만 이 전시회는 꼭 보기를 원하셨다. 아마도 자신이 젊은시절 북한에서 내려와 영락교회를 세우던 무렵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거동이 아주 자유롭지는 않으셨지만 조향록, 김준곤 목사님 같은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전시장을 찾아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과 안병훈 전무의 안내로 구석구석을 주의 깊게 둘러보시던 한 목사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한경직 목사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뵈 수 있는 기회는 그로부터 한 해 뒤에 왔다. 1996년 4월 장로교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원로목사님들이 남한산성 내 영락여자신학교 생활관에 자리잡은 사택에서 생활하시던 한 목사님을 찾아뵈는 자리를 취재하게 된 것이다. 한 목사님의 거

쳐는 말로 듣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좁고 검소했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원로목사님들과 농담을 섞어가면서 “얼마나 기쁜 날인지...”라고 다정하게 말씀을 나누시며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한 목사님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다.

한경직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뵈는 것은 1999년 9월 영락교회 안에 있는 한경직목사기념관에서였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한국의 전쟁고아와 남편 잃은 부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월드비전 간부들이 창립 50주년 행사를 앞두고 한국을 찾았다가 창립 주역의 한 사람인 한 목사님을 방문했다. 3년 반 만에 다시 뵈게 된 한 목사님은 워낙 고령으로 거동과 언어가 불편하셨고, 대외활동도 1년 반 이상 중단하고 계셨다. 그럼에도 휠체어를 탄 목사님은 월드비전 설립자인 고 밥 피어스 목사의 부인과 손을 맞잡으면서 감격어린 표정이었고, 떠나는 월드비전 간부들에게 손을 흔들어 환송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0년 4월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 나는 6일 동안 영락교회에서 치러진 장례식을 취재하면서 한 목사님이 한국 사회와 개신교계에서 차지하시던 비중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개신교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김수환 추기경과 송월주 전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각계 지도급 인사들이 앞 다투어 빈소를 찾았다.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범국민적인 추모 열기를 받았던 종교인은 지난 1993년 입적한 성철스님과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 정도였다.

지금도 나는 그해 4월 25일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렸던 한경직 목사님 장례 예배 모습을 기억한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수천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진 장례예배에서 방지일 목사님은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 주님을 만나는 듯 푸근했던 분”이라고 회고했고, 김준곤 목사님은 “천만 성도들은 아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고 말했다.

강원용 목사님은 “진보-보수를 넘어 존경받았던 열린 자세는 앞으로 더욱 소중해질 것”이라고 했고, 정진경 목사님은 “섬김받기보다 섬기기에 힘썼던 모습은 목회자들의 영원한 귀감”이라고 했다. 한 목사님을 따르며 지켜봤던 후배 원로목사님들의 증언은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를 때렸고, 다음날 아침 조선일보에 ‘한경직 목사가 남긴 것’이라는 기사칼럼을 통해 국민에게 그 느낌을 전달했다.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유산을 이어가기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강렬한 인상은 내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됐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을 사표(師表)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 개신교계의 어느 분이 그를 대신할 지 궁금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누구도 그 빈자리를 메우지는 못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 한 목사님이 얼마나 큰 어른이었는지를 새삼 확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한경직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한 원로목사님은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고 그가 남기고 간 신앙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힘써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경직 목사님의 10주기를 앞두고 한 목사님의 자취가 가장 많이 남아 있고 그 정신이 살아 있는 영락교회가 그런 역할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만남**

하나님이 보내신 러브레터



강연미
청년부 꿈꾸는 땅

성경말씀을 읽기 시작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초신자라 부릅니다. 그만큼 제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주된 마음으로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피곤함을 가장한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주일이 되어서야 겨우 성경책을 펼치게 되는 날이 수 없이 많았고, 결국 2~3년 만에 일독을 마치고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고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금년은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조금은 특별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큰 기대를 품고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석하였지만 묵상할 시간도 없이 2배속에 가까운 목소리에 맞춰 빠르게 눈으로 따라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첫째 날, 집에 돌아와 이것이 과연 은혜가 될 수 있을지, 괜히 몸만 피곤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제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러브레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자 차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져 두려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아닌 숲을 보듯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심판의 메시지와 진노와 질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성취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온 몸으로 느껴졌을 때에는 제 가슴이 너무나도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기만 하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단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수히도 많은 러브레터를 보내셨습니다. 6000년이 넘도록 한 맺힌 역사를 펴 오시며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가 그렇게 해서 두툼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편

지를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답장이라 믿습니다.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언약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구체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신뢰를 재확인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의 삶속에 매순간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 그 언약들을 반드시 성취해내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실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고 기쁘신 뜻이 이뤄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순종하여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

아가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늘 무섭게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맥을 알고 그 맥을 따라 말씀을 읽어 나가니 새로운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러브레터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는 저의 달려갈 길이 제시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따뜻미지근한 저의 신앙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평안함으로 치부할 때는 없었는지, 미지근한 영의 피를 평강으로 착각할 때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복음전파를 위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감동 받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는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써 마라나타(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남**

세 가지 임종



김 상 혁 목사
문화선교, 노원교구 담당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포한 사실-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인데,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찌된 일입니까?”(『메시지 신약』고린도전서15:12)

“너…꼭 예수님을 믿어라!”

목회자로서 누군가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은 흔하다. 6년 전 즈음이던가 한 달 여 동안 내게 찾아왔던 세 성도의 임종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승 집사님은 불쌍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사명삼아 살았다. 특히 그의 수지침 시술은 동대문 일대에 소문이 자자했다. 어느 날 집사님에게 암이 찾아왔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가슴을 크게 들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집사님. 필시 무엇인가 말하기 위하여 달아나려는 숨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듯이 보였다. 조각난 음절

로 아내인 권사님을 먼저 찾았다. 권사님은 집사님 곁으로 와서 손을 잡고 먼저 갈 길을 떠나는 짝꿍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주고받았다.

“여보 고마워요. 저도 사랑했어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여전히 온 몸을 들썩이며 가쁜 호흡을 이어가던 집사님은 다시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신호를 하였다. 옆에서 누군가 셋째 동생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떠밀다시피 형님 앞에 세웠다.

‘셋째 동생?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그의 마지막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모두 그의 입술과 외마디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너… 꼭 예수님을 믿어라!”

동생은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집사님은 할 일을 다 마치기라도 한 듯 몰아쉬던 숨을 평온케 하시더니 한 나절 후에 주님 품에 안기었다.

“아, 정말 아름다워요!”

어느 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는 교회 찾은 중년의 아주머니가 있었다. 신설동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그 아주머니에겐 스물 예닐곱 정도 된 딸이 있었다. 그녀는 일찍부터 혼자 집 근처 교회를 다녔는데 매우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딸의 간곡한 전도를 받아 식당 근처에 위치한 교회를 찾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골육종’이란 병이 찾아왔고, 급기야 한 쪽 발목을 절단하게 되었다. 온전한 신앙과 남은 대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부분의 신체를 가지고 살 수 있다니 오히려 감사한 것 아니겠는가. 함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 일 년 좀 지났을까. 재발 소식과 함께 그토록 빨리 헤어지게 될 줄이야. 마지막 모습을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부름 받던 그 날도 평소와 같이 기분이 밝고 좋아보였다. 가족이 모여 있는데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딸 주위로 모두 둘러섰다. 침대에 앉은 채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가까이 나오게 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에 꼭 나가셔야 해요.”

엄마가 인상 깊게 전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두 손을 위로 들어 올리며 고개를 들어 무엇인가 황홀하게 바라보는 듯하더니 “아, 정말 아름다워요!” 하며 감탄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몸을 침대에 다시 눕힌 채로 정신을 잃고 오후에 숨을 거둔 것이다. 어머니는 딸이 천국을 본 것이라고 믿는다. 나 또한 굳게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하늘에 속한 것을 보여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도와주신 것이라고.

“어머! 목사님, 애 얼굴을 좀 보세요!”

정 권사님은 심한 당뇨로 앞을 거의 보지 못한다. 제기동에서 동대문까지 ‘예배당 가는 길’은 그야말로 눈 감고 가고 오는 길인 셈이다. 권사님은 늘 큰 아들이 마음에 걸리었다. 사업을 한답시고 집을 떠나 수년째 호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권사님이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호주에 있어야 할 큰 아들

이 집 현관 앞에 배를 움켜쥐고 철퍼덕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몸을 한 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한다.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려는 아들의 마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चे장암 말기였다.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며 찡그린 얼굴은 보는 이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친 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았을 때 고인은 아직 마지막 모습 그대로 고요히 침대에 누워있었다. 아들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던 권사님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건넨다.

“어머! 목사님, 애 얼굴을 좀 보세요! 어떻게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있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더니만...”

정말이다. 그 때 내가 본 얼굴은 결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찾아 낼 수 없는 얼굴이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증거하는 얼굴’이라고 혼자 이름 한 후 지금껏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생에게 복음을 전한 승 집사님, 이제 아빠만 교회나가면 된다고 말한 후 무엇인가 천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듯 감탄하고 눈을 감은 자매님, 사람이 인위적으로는 표현하기엔 불가능한 듯 보일 정도로 평화롭고 기쁜 표정을 남기고 간 정 권사님의 큰 아드님,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다. 기쁨으로 그 날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 **만남**

이렇게 좋고 감사한 것을 나만 안다면 이게 가장 큰 죄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달에 영락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차순진입니다. 제가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제가 이 단상 위에서 간증을 해도 되는지 매우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예전에 연예인이나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치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같이 아직 나약한 사람이 간증을 해도 되는지 매우 두렵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피해다니던 시절

저는 영락교회가 처음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으셨기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중학교 때에는 기독교학교라 마지못해 교회에 나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사실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라고 강요하시고 본인 소원이라고 하실 때마다 억지로 따라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게 아니라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 편의 위주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셨을 겁니다. 누님이 현재 영락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매주 집에 와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자. 죄



차 순 진
강북·도봉교구
에이스케이오디디 대표

받는다” 등 정말 사람이 보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누님을 피했습니다. 정말 사업도 힘이 들고 평일에는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사람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하는데, 집에서 할일 없으니까 교회 일이나 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가능한 한 일요일에는 쉬고 싶었고 마음 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화인지 정말 누나가 싫었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망하든 성공하든 나 좀 가만히 놔뒀으면 했습니다. 제 애들도 고모가 매일 이야기하고 하니깐 작년 여름부터 영락교회에 억지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매주 아침되면 교회 가기 싫다고 성화였습니다.

“아빠도 교회 안 나가는데 왜 우리만 나가냐?”고 매번 울구불구 했습니다. 저는 모른척하고 아침에 잠을 잤습니다. 속으로 애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전 정말 교회 나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께서 다시금 자녀로 찾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으로 제가 피하고 도망치려 해도 계속해서 찾게 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자살 시도

저는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일을 하다 저의 능력을 자만하여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저것 돈 되는 것 있으면 일을 하였는데 할 때마다 계속 실패를 하였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친구, 가족, 선배, 동료들한테 돈을 빌려 이번에는 되겠지 하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돈, 사람, 신용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선택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끊이지 않는 빚 독촉은 저를 죽음의 길로 자꾸 내몰았습니다. 정말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려고 여러 생각을 많이 했지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막막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죽어야 하나를 생각하게 되고, 10층에서 뛰어내릴까? 약을 먹을까? 아니면 벡타이로 목을 맨다? 등등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 샤워부스에 벡타이를 묶고



회사 사무실에서 자리를 함께한 필자(오른쪽)와 교회에 나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준 송중승 과장(왼쪽)

나서 제 자리에 앉아 컴퓨터에 유서를 써나갔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저런 글을 쓰는데 여러가지 생각 중에 애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도저히 애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되려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기에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역경을 주시는지 화를 냈습니다.

회사 직원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나서도 매일 힘든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인을 통해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속으로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답니다. 이 일을 하려면 기술자가 필요하여 없는 돈에 우수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여러가지 거짓과 회유를 하여 직원을 채용하여 마음속으로 찔찔한 생각은 있었지

만 그건 나중 일이었고, 일이 잘 되면 보상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둔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저를 믿지 못하겠다고 또한 다른 회사에서 지금 받는 급여보다 2배를 준다고 그 회사로 간다는 통보였습니다….

기술직원이 없으면 이 일은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 거짓이라도 급여를 맞춰준다고 하고 차도 사준다고 했지만 그 직원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회유할 힘도 능력도 없어 거의 포기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과장, 나 교회 나갈까 나 좀 살려줘” 라고… 왜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왔을까 하고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저에게 일주일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에게 찾아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돈보다도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도리라고 하면서 계속 회사를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이렇게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고 감사한 것을 나만 안다면 이게 가장 큰 죄

그 후로 지금까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빠지지 않고 애들과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애들도 이제는 가기 싫다는 이야기 안

하고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벽기도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저를 4시 반에 저절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기대했던 7억원의 장비납품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금전적으로 힘이 들지만 계약이 늘어나 회사는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든지 이끌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보답하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처음 주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저의 간증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면 저로서는 최소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약속 드립니다. 제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100명의 분들을 꼭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고 감사한 것을 나만 안다면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소설 모세’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경읽기에 열심이다. 성경 2만 번 읽기 운동에 날이 갈수록 완독자가 늘어난다. 성경을 읽으면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접하게 된다.

영화 십계에서 찰톤 헤스턴이 그려낸 모세, 소설을 통해 접하게 되는 모세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생략된 부분을 작가에 따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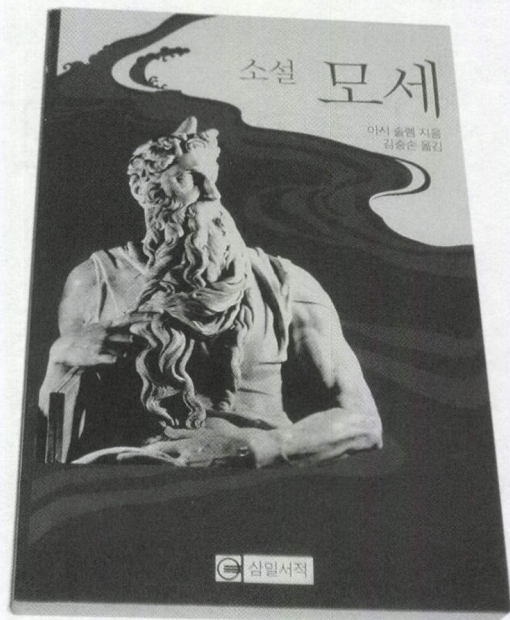
모세의 이야기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지도 한 장 없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는 모세의 믿음과 리더십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노예생활에서 광야생활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의 가나안 생활로 이끄시는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모세를 통한 써번트 리더십

죄의 노예생활을 하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지도자에게 킹십(Kingship)을 갖게 한 후, 그 내면을 써번트십(Servantship)으로 변화시켜 지도자로 세우신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유형으로 써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리더십으로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출애굽, 성막건축, 왕국 건설 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도 재현되었다. 하늘의 왕권을 버리고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신약에서는 영적으



로,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새 생명, 그 영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실재인 교회는 이러한 지도자의 사명을 통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접근이 편한 소설 형태로 읽게 되면, 기독교 작가의 상상력과 쉬운 용어로 꾸며진 내용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이 기독교 문학의 존재 이유이고 또한 기독교 작가가 필요한 까닭이다.

소설 모세는 이러한 시각에서 일독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자 아시 솔렘(Asch Shalom)은 폴란드 태생 유대계 미국인 소설가이며 극작가로서 현대문학에서 널리 알려진 작가이다. 그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옛날 구약성서 시대의 위대한 영웅의 모습을 생생하고 박력있게 재현시켰다. 이 책은 힘과 신앙과 지도력을 갖춘 예언가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리 교회 김충돈 안수집사가 이를 번역하고, 기독교 서적을 즐기치게 고집하며 출판하는 삼일서적의 신판이다. **만남**

【김형철 집사 : 홍보출판부 편집위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처음 만남지에 기고를 청탁 받았을 때였다.

‘주제 : 전도자 노트’가 눈에 확 들어왔다. 순간 드는 생각이 “아하, 하나님이 내가 요즘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극하시기 위함이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예전에 캠퍼스에서 전도훈련을 받을 때도 전도자 노트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전도자 노트에 대해 무엇을 쓰나?” 하는 고민이 들었다. 또한 사진도 내라고 하는데 전도할 때 찍은 사진이 남아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였다. 그래서 홍보출판부에 전화를 걸었고,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전도노트가 아니라 나의 글이 실릴 칼럼의 제목이 ‘전도자 노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ㅎㅎㅎ(미리 만남지 좀 잘 살펴볼 것을.-)

4영리를 통해 주님과 만나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4영리를 통해서였다. 이미 6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후였지만, 내 안에는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을 때 4영리를 읽고 ‘복음이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이고 명확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구원의 진리가 명확하게 내안에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구원의 지식이 나의 옛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삶에서 기독교인의 규범적인 삶과 나의 실제의 삶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를 만들었고 나는 영적으로 혼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조 남 식 전도사
목회행정, 고양·파주교구 담당

대학교 2학년 여름수련회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았다. 당시 수련회 주강사였던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말씀이 나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다. 나의 현실적인 고민은 처음부터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한 것이며, 그분의 판결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군생활은 좋은 광야훈련의 장소이다

나의 신앙의 또 다른 전환점은 군생활에서 있었다. 대학교를 다닐 때는 많은 유혹이 나의 마음을 빼앗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도 벌고 싶고, 진로를 위해 공부도 해야 하고, 이성친구도 사귀고 싶고, 나를 위해 투자하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그 곳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다. 그 곳은 세상의 유혹은 거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 책도 여러 권을 읽어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없다. 그 곳에서는 한 권만 읽으면 된다. 지금도 그때의 삶을 돌이켜 보면, 군대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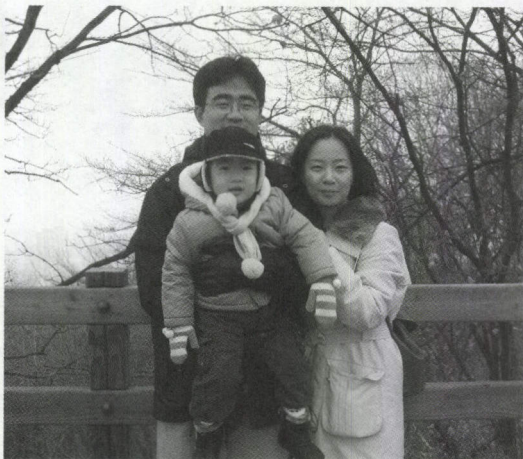
그 후에 군생활과 대학생활을 마친 후 신림동에 들어와서 고시공부를 하게 되었다. 신림동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나의 모습 그 때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20년 후의 모습이 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고시공부를 마음 먹은 이유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접촉점이라는 두 가지 중에 복음의 접촉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고시공부를 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에 행정고시 2차 시험을 치른 후 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진로와 비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재고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더 이상의 공부에는 모든 여건과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힘든 상황이었고, 고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서 드러난 여러 가지 나의 안에 있는 문제들은 나를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함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러한 문제와 진로를 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나는 평소처럼 성경을 통독하던 중이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해 벌떡 일어서는 것이었다. 나



남산가는 길에서 김은영 사모, 아들 은성과 함께

는 이 말씀을 긴 시간 동안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였다. 그런 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였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였다. 그런 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신대에 들어갔고,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좋은 지도를 받는 은혜를 누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 할렐루야!!

은혜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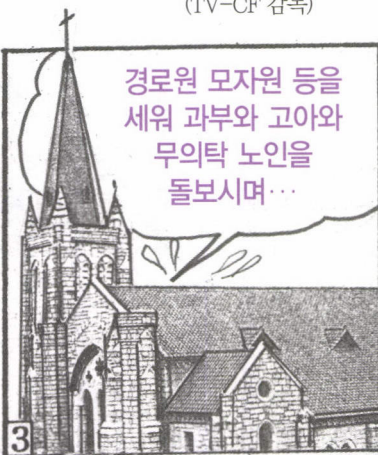
내 평생의 소망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의 삶은 전적인 은혜의 삶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성경을 꿰고 나온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붙잡힌바 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사랑의 봉사



글·그림 조위석 집사
(홍보출판부 전문위원)
(TV-CF 감독)



성도 여러분! 환경직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버림받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시다

결려의땀

형제여! 그대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봉사를 한적이 없지요?

변명의땀

먹고 살기 바빠서...

형제여! 입으로만 사랑을 외친다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 죄송해요

사랑의 봉사를 열심히 하면 영(靈)의 눈도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의땀

봉사가 장난 아니네! 몸살나겠어 끄 끄

끙끙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르신 제가 목욕 시켜 드리죠

고맙네 목욕한지 너무 오래 됐어~

영!영! 주님

젊은이 어찌하여 우는고? 힘들어서 우는가?

사랑의땀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왔는데 땀흘려 봉사하면서

귀로만 들던 주님의 사랑을 손으로 만지는 것 같아 감격하여 우나이다 흑! 흑!

주님!영영영

그래 맞다! 지금 너는 나를 목욕 시키고 있느니라!

감격의땀

요1서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 지느니라

[목회자 기고]

날개 잃은 천사를 사랑으로 세우는 사랑부!



장 병 희 목사
사랑부 담당

할렐루야~

2010년,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락교회의 사랑부를 섬기는 장병희목사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어느 부서, 어느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부를 맡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한 이유는 2010년 올해 저희 교회가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표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표어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개 잃은 천사를 섬기는 사랑의 실천자

저는 사랑부에 속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서적,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과 함께 사역한 경험은 없지만 늘 사랑부 친구들을 생각할 때면, 그들을 “날개 잃은 천사”

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올해 사랑부를 맡아 사역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진실로 사랑부 친구들이들이야말로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수고하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상처입은 사랑의 실천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부 선생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느 한 분도 인상을 쓰지 않고 묵묵히 봉사합니다. 사랑부 지도부들도 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상냥한 웃음과 미소를 머금고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존경 그 자체였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님이 주신 선물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양육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은 천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저는 매주일 축도 후에 사랑부 친구들의 눈동자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라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사랑부 친구들을 사랑으로 세우며 섬기는 저희 모든 교사들은 사랑부 친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인격체라고 믿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사랑부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한 분의 선생님이 한 명의 친구를 개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분반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힘든 가운데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온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공과와 연결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함은 물론 인지, 지각, 언어 등의 영역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한 친구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이번에 사랑부 친구들의 부모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예배 중에 행한 연극을 보았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오랜 시간동안 준비하고 연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교훈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일깨워 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연극부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만들어진 한편의 연극을 통해 사랑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고 한정된 활동에 제한되어 있던 친구들의 멋지게 준비한 연극을 보면서 많은 감동 받았고, 사랑부 친구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시청하시면서 먼 타국에 가있는 통신원들과 교신하며 방송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어떤 질문을 하면, 조금 시간이 흐른 후 통신원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마도 조금 늦게 반응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도, 견디면서 뉴스를 시청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일반인처럼 발빠르게 반응하지 않지만은 자신들만의 개성과 특성에 맞게 반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인내하며 들어주고, 쉽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사랑부 친구들이 정신지체, 언어장



슬기(왼쪽), 연화(오른쪽)와 함께, 선생님 화이팅!

애, 주의력 결핍장애 등을 동반하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저들 나름대로의 탁월한 재능을 보일 수 있음을 깨닫고, 사랑으로 지원하고 사랑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 설교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 ~ 사랑해요!” “예수님 ~ 만나주세요!”

“성령님 ~ 도와주세요!”를 외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기 날개 없고 시름하는 사랑부 천사들을 좋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저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부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남**

[교사 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사랑부



류 혜 선
사랑부 교사

성호는 하늘나라 천사이고, 제가 잠시 맡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성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게 일일이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것이고, 늘 새롭게 닦치는 일들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남들에게는 쉽게 지나가는 모든 일이 하나도 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린 삶이 될 것입니다.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던 야곱의 심정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감히 짐작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을 이 부모님들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늘나라 천사를 잠시 맡아 보살피며

올해로 3년째 사랑부에서 성호를 맡아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보살핀다는 말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성호가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달려 사랑부

에 오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끔은 재미있는 활동도 하는데 그저 함께 할 뿐입니다.

아, 생각해보니 추억도 많이 만들었네요. 2008년 여름에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여름 캠프도 갔었고요. 2009년 여름에는 남한강 연수원, 2010년 봄맞이 성경학교 때는 63빌딩 수족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 휴대전화 첫 화면에는 분홍색 사랑부 티셔츠를 입은 성호가 다섯 손가락을 다 펼친 개성있는 '브이'를 하고 있네요.

사랑부에는 30, 40, 50대인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들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연극예배 때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누비고, 마당찬양과 모든 기도회에 열심히 참가하지요. 너무나 순수하고 때로는 수줍게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장성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두 시간 넘게 걸려 주일예배를 드리러 오는 형제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발이 성성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탁하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큰 고난을 겪으시니 큰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제 역할은 다 끝난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부 친구들을 사랑부 친구들의 부모님에게만 맡기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니다. 그 부모님들의 고난이 그분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부의 많은 교사들은 길게는 11년씩 사랑부를 섬기며 친구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교사들에게 사랑부 친구들은 영적인 자녀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사랑부 친구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랑부 친구들은 몸이 연약합니다.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사랑부 친구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었고, 갑작스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긴급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저런 기분이나 조건 따질 때가 아니고 긴급히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래야 합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좋은 경험들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경치 좋은 곳으로 나들이도 가고, 즐거운 율동과 노래도 배우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다양한 학습활동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부 친구들이,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시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일에 가장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랑부 지도목사님, 전도사님, 지도부 이하 모든 선생님들은 매우 바쁩니다. 바쁘다 보



사랑2부 청년들의 연극 발표

니, 다른 걱정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태했다가도 얼른 번쩍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부 교사들에게 주시는 깊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부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랑부 가족과 지체들은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는 모두 온전한 몸과 마음을 입고 서로의 수고에 감사하며 함께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영락의 모든 교우님들, 사랑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학부모 기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의 부서 '사랑부'



정 은 희 은퇴권사
고양·파주교구,
서장원 학생 어머니

우리 영락교회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의 부서 '사랑부'가 있습니다. 사랑부에는 영아에서부터 청소년기 발달장애 아동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1부와,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는 성인발달장애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2부가 있습니다. 사랑부는 선생님 한 분이 발달장애 학생 한 명을 1:1로 지도하는 부서입니다. 저도 4년 전에 함승수 목사님이 사랑부를 소개해 주시기 전까지, 영락교회에 사랑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 사랑부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애가 사랑부에 와서 신앙으로 지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저의 아들을 돌보아주는 사랑부

저에게 사랑부에 대해 글을 쓰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한 일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1978년 대학을 졸업한 지 18년 후에 만나게 된 대학 스승님께서 그 당시 나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지금 어려운 모든 일을 돌봐 주실 거라고 하시며 다니고 계신 영락교회에 나오라고 하셔서, 영락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 안내해 주시고 학습, 세례를 받고 우리 애들 3남매도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셨고, 지금은 영락교회 은퇴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제



아름다운 남한강 주변 산책 중 즐거운 한 때

아들 장원이가 1982년 정신적 장애를 앓기 시작해서 2004년 까지 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2001년 어느 날 사랑부를 소개받고 처음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과 부서에 계신 임원님들, 교사님들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내 자녀도 아닌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구나' 생각하며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사랑부에서 드리는 예배와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 장원이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부의 담임선생님들은 장원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토요일에 실시하는 사랑부 주말학교에서도 음악활동, 미술활동, 댄스, 연극활동, 원예활동 등을 통해 특별지도도 해 주시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는 미술전시회, 찬양대회, 연극예배도 드리며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장원이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사랑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날 사랑부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담임선생님을 힘껏 때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는 선생님을 때리면 어떻게 하나. 저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구나'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때린 그 친구를 더 열심히 돌봐 주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남한강 연수원), 즐거운 반별 활동

그 모습을 보고 사랑부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처럼 사랑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부와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병희 목사님, 이찬일 전도사님과 여러 교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만남**

빛을 찾아 주는 눈 수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눈에 관련된 기록이 상당히 많다. 눈이 성하면 좋으려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둡게 된다. 성하지 못한 눈,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눈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라식과 라섹 수술

근시는 눈의 초점거리가 망막보다 짧아서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질환이다. 초점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먼 곳은 안보이게 되어 안경 없이는 도저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다. 이 질환은 1280년대부터 안경으로 교정해 왔으나 안경의 무게로 인한 불편함, 미용 상의 문제로 수술이 치료법으로 대두되었다. 안경으로 교정하면 안경알 주변부에서 상의 왜곡이 생기고 주변부 시야에서 복시(複視)가 생겨 원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러한 상의 왜곡으로 인하여 안경을 바꿀 때마다 적응하기 전에 어지러움과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수술로 교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몇 십 년간 노력한 끝에 나온 기술이,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서 초점거리를 이동해 주는 라식(Lasik)과 라섹(Lasek) 수술이다.

라식은 수술 후 아프지 않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나 각막에 따라 교정할 수 있



신 영 주
강남교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안과 조교수

는 양에 한계가 있다. 라섹은 라식보다 더 많은 양을 교정할 수 있고 각막이 얇아도 할 수 있지만 수술 후 아플 수 있고 시력이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두 수술 모두 요즘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라식과 라섹 등의 레이저를 이용한 시력 교정수술을 받으면 마치 언제 안경을 썼는가 싶게 편안하게 세상을 보게 된다.

백내장 수술

백내장(白內障)이란 근시나 난시와는 다른 것으로 눈 안의 렌즈(수정체)에 생긴 것으로 세상이 뿌옇고 침침하게 보이게 된다.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백내장 수술이다.

요즘은 수술기술이 나날이 좋아져서 백내장 수술 후 다음날부터 아프지 않고 잘 보이는 경우가 많으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아직 낫지도 않아서 세균이 들어 갈 수도 있다. 이때에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의학이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의학의 발전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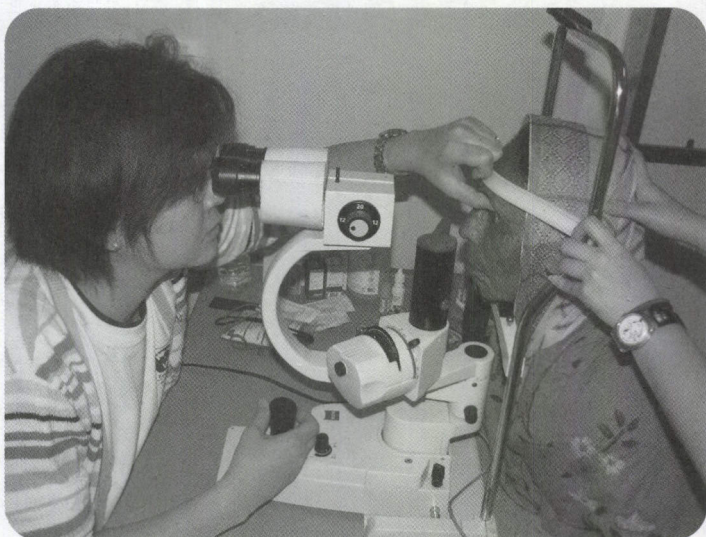
눈 수술만 받으면 밝게 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데도 의학이 미치지 못해 어두운 세상에서 운명이라니 하며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억 8천만 명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으며, 5초마다 한명씩 실명을 하고, 1분마다 어린이 한명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 중 대부분의 질환은 눈 수술 등의 치료로서 실명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

이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 주고 눈 수술을 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다시 보게 하셨다는 ‘실로암의 기적’을, 의학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오늘날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실로암의 기적’을 이 땅에

‘잃어버린 시력을 찾아주고, 함께 보는 밝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비전을 품고 안과 의사, 간호사, 검안사 등이 팀을 만들어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며 기독교사랑으로 봉사하는 ‘비전케어서비스’(vcs2020.org)라는 민간봉사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1999년 충북 음성 꽃동네의 안과 무



방글라데시 의료봉사 사역중 현지인을 진찰하는 필재(왼쪽)

료검진으로부터 시작하여 10여 년간 파키스탄과 몽골,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의 각국에서 40,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백내장수술로 시력을 되찾게 한 환자가 5,500명이 넘었다.

금년 2월에는 방글라데시에서 63차 개안수술과 안과진료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금년 말에 80차 인도까지 일정을 계획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출기만 하던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다. 이 부활의 계절에 육신의 눈이 좋지 못하여 온 몸이 어두움에 쌓여 있는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빛을 찾아주는 사랑의 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의 빛이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자. **만남**

영락 디아스포라 in KBS

참으로 스산하고 심란한 때였습니다. 대학 3, 4 학년을 10·26, 12·12, 광주민주항쟁을 거치며 전국의 대학이 휴교령의 연속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학 4학년 막바지인 1980년 12월 1일 아침. 일간지 방송순서안내에서 KBS, TBC, MBC 가 하루 아침에 KBS1, KBS2, KBS3, MBC로 변경된 것을 보았습니다.

KBS로 보냄받은 영락의 디아스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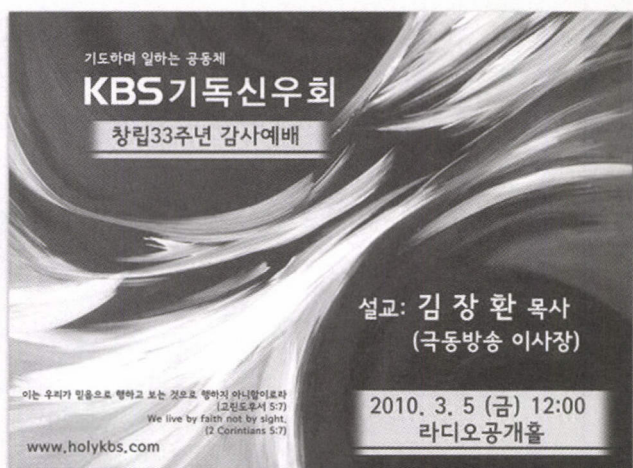
방송통폐합. 그 당시 방송국과는 어떤 관계도 없었고 관심조차 없었지만 '아, 이건 정말 옳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일기장에 11월 30일과 12월 1일, 두 날짜의 방송순서안내를 오려 붙였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고 옳은 방향으로 이 나라의 나아갈 길을 구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저는 KBS 공채8기 시험을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거치며 치렀고 '오직 은혜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 많이 밀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감히 합격하게 해달라는 간구보다 '하나님, 저 불합격되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 기도했습니다. 막연히 억울한 마음에 드렸던, 방송 상황을 위한 기도를 이제는 방송국 안에서 더 열심히 계속하라고 보내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찬 선배께서 저를 찾아내 신우회로 인도하시는 예비하심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뒤집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심을 더욱 하였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제한된 한 시간 여, 비상연락망같이 일순간 모여 예배드리고 흠어지는 모습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34년째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끔 큰 행사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만 일상 예배장소는 어린이 합창단실.

각자 달란트대로 바빠집니다. 현수막 한 장으로 예배당같이 변신되고, 엔지니어는 얼른 마이크를 설치하며, 인쇄소가 가까운 부서 사람은 주보를 들고 뛰어오고, 음악감독은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은 의자로 변했지만 조그만 어린이 벤치에 쪼그려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광경은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목사님들께 도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영미 집사
대학부 지도위원, KBS 편성기획팀 차장·기독신우회 부회장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신우회는 직위구별, 남녀차별, 직종 이기주의, 정치적 영향력의 풍파, 심지어 교파의 다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부정적 요소를 눈뜨고도 기도로 이기고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을 다할 이유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이끄신 선배들을 본받아 지금도 저희들은 입사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야말로 하나님 주신 기회이기에 결코 소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문 디자이너로서 방송 영상에 관련된 모든 디자인 분야는 다 경험하며 창의력있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상은 제 분깃에서 영락의 작은 디아스포라로 사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제게 힘과 배움과 사랑의 도전이 되는 영락교회의 저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주님 사랑!

신우회 33주년 기념예배 기도문

다음은 33주년 기념예배에서 나눈 기도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0년 3월 5일, 지금 이 자리에 저희는 KBS기독신우회 창립 33주년 감사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구별하여 예배자로 참석하는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33년을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인도하실 그 사랑 바라보며 감사를 올립니다. KBS기독신우회를 통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삶을 주님 앞으로 돌이켰던 산 역사를 저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회사의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드렸던 숨은 기도를 귀 밝으신 나의 하나님 듣고 기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저희의 연약함 또한 고백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분깃에서 평안과 감사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잠시 모였다 흩어지지만 각자에게 이 시간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흩어진 교회, 디아스포라의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모든 순서에 주님께서 미소로 동석하고 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남**

* 참고로 내년 창립 34주년 감사예배에는 이철신 목사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성령훼방죄...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을 훼방하는 것’이란 죄를 깨닫게 하고 참회케 하는
성령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의적(故意的)으로
성령에 대항하려는 고집스럽고도 악의에 찬 심령과
그 모든 활약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신학을 그만두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그만둔 계기는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나태함과 교만과 여러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또한 저는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 너무나 두려운 신앙의 체험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죄악에 대한 징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성령훼방죄)가 아닌가

한 3년이 흐르고 저는 이제 점점 회복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아침 새벽기도를 하고 아침 금식을 하면서 저는 갑자기 무엇인가 큰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무엇인가를... 저는 이로 말미암아 저의 과거의 죄악이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모

독한 죄(성령 훼방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죄의 결과로 이마 부분에서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 저에게서 빠져나가는 체험과 그날밤에 지옥에 저 자신이 떨어져 고통을 받는 체험을 하곤 그 후로 한 2년 동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복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저는 아침에 두려운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자>

형제님께!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형제님의 글을 보니 그 일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됩니다. 그러나 형제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이 지금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이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
대하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사시기 바
랍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아울러 성령훼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눅 12:10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
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
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했
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블라스페미아미’ 라는 동사를 썼
습니다.

같은 말이 막 3:29에서는 ‘성령을 훼방한다’,
마 12:31에서 역시 ‘성령을 훼방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블라스페미아미’는 상대방
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일에 적극적인 장애역
할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조롱한
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난해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
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인
간의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요 3:16).
그럼에도 본문은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성령훼방죄가 용서
를 못받느냐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
야만 구원을 얻는 것인데,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

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비방, 모독하는 것은, 곧 참회와 중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遮斷)해 버리는 일
로서 결국 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결
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훼방이란 고의적으로 성령에 대항하는 것

예수가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치유, 금식,
부활하심 등)이 분명히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안
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의도적
으로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
고, 성령께서 인간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배척
하는 것은, 곧 용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리
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훼방하는
것’이란 죄를 깨닫게 하고 참회케 하는 성령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의적(故意的)
으로 성령에 대항하려는 고집스럽고도 악의에
찬 심령과 그 모든 활약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의 지금 모습을 볼 때 성령님
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며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
하는 것도 아니기에 내가 성령훼방죄를 지은 것
이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
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 마음열기 :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귀감이 되는 믿음의 선배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찬송하기 : 너 시험을 당해 (찬송 342장)
- 기도하기 :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게 진리를 선택하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마가복음 14:53~72

1.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중에 이루어진 증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57~59)

2.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 답변하셨습니까?(61~62)

3. 예수님이 재판받고 모욕과 수치를 받는 동안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불을 쪼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66~71)

4. 예수님은 법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기 있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연하게 고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동거 동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요?

5.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현실에 타협하고 싶고 때론 신앙을 부인하고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었습니까?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여 예수님처럼 용기 있게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마무리 기도하기 :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 있는 신앙,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용기 있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 마음열기 : 자신이 하지 않은 억울한 일로 고통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느낀 감정을 나누어 봅시다.

■ 찬송하기 :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14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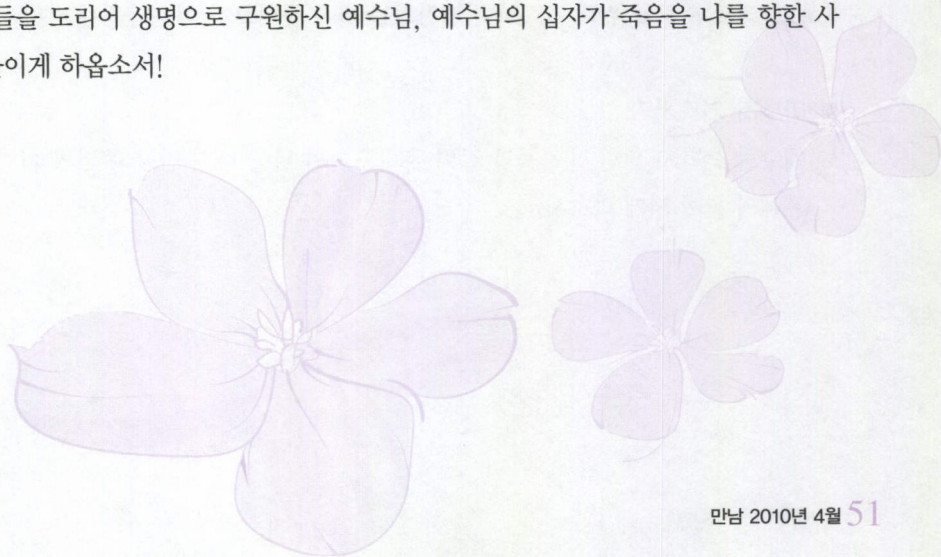
■ 기도하기 :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요한복음 19:1~22

1.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문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1~4)
2.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소했습니다.(참고 18:30)
그것이 잘 통하지 않자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적 범법자로 몰고 갔습니다.(7)
그래도 빌라도가 주저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무엇이라 소리쳤습니까?(12~15)
3.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은 팻말에는 무슨 글이 쓰여 있었습니까?(19)
4.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셨으며,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온갖 죄로 고발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합니까?
5.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당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한사람씩 이야기해 봅시다.

■ 마무리 기도하기 :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도리어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향한 사랑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 마음열기 :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그것이 헛수고가 되었거나 그와는 반대로 수고하지 않았으나 많은 것을 거두는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찬송하기 : 십자가 군병 되어서 (찬송 353장)

■ 기도하기 :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요한복음 21:1~14

1.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 후에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7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1~3)

2.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지쳐있던 시간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까?(4~6)

3.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맞이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8~13)

4. 부활하신 주님이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조반을 주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5.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연약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했던 모습의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합니다.

■ 마무리 기도하기 :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 주님의 기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소서.

■ 마음열기 : 남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는 오해와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 생긴 재미있었던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찬송하기 :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96)

■ 기도하기 :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요한복음 14:1~11

1.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1)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2~3)

2.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2~5)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6)

3.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빌립은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8~10)

4.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이별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은 불안과 근심으로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임과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제자들은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안과 근심 속에 떨어졌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신은 어떤 위로를 받으십니까?

■ 마무리 기도하기 :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안에 믿음 뿌리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 성도 일동 합창 -

새가족 (등록기간 : 2010.2.19~3.14)

등록일	성명	교구	구역	등록일	성명	교구	구역	등록일	성명	교구	구역
02.19	김주빈	17	3	02.21	서정곤	90	888	02.24	송대운	5	8
02.19	송예빈	12	35	02.21	이수연	90	888	02.24	유보미	5	8
02.21	김명선	17	0	02.21	김영옥	8	19	02.24	김미경	5	8
02.21	조재윤	9	65	02.21	조성민	90	888	02.24	이지연	5	8
02.21	김기화	9	65	02.21	구연희	3	32	02.24	임초롱	5	8
02.21	이진아	90	888	02.21	김서연	11	56	02.24	김다예	5	8
02.21	최경애	12	65	02.21	김지애	70	888	02.24	유보라	5	8
02.21	강대남	15	28	02.21	김민하	90	888	02.24	김수경	5	8
02.21	사신애	90	888	02.21	박세호	70	888	02.24	박지선	5	8
02.21	최태준	90	888	02.21	김 산	90	888	02.24	김효정	5	8
02.21	장정민	18	34	02.21	황신용	5	39	02.24	정승연	5	8
02.21	김정애	18	34	02.21	최정옥	5	39	02.24	김지윤	5	8
02.21	이해성	90	888	02.21	안지영	90	888	02.24	선은영	5	8
02.21	이상근	19	36	02.21	문세화	70	888	02.24	조용석	5	8
02.21	황현숙	90	888	02.21	최승주	90	888	02.24	송대영	5	8
02.21	김창주	90	888	02.21	임민주	80	888	02.24	노정은	5	8
02.21	최성은	90	888	02.21	김은희	90	888	02.24	김하정	5	8
02.21	진성현	90	888	02.21	박선영	90	888	02.24	황나영	5	8
02.21	안선영	7	0	02.21	박효순	9	40	02.24	이두원	5	8
02.21	연매자	7	0	02.21	김지현	90	888	02.24	박준수	5	8
02.21	김영래	7	0	02.21	한지윤	15	0	02.24	오재민	5	8
02.21	서정신	12	10	02.21	변유나	15	0	02.24	김채영	5	8
02.21	최우석	12	18	02.23	한영립	4	44	02.24	김민정	5	8
02.21	최우주	12	18	02.23	박상빈	5	8	02.24	이한빈	5	8
02.21	정소슬	70	888	02.23	김정철	5	8	02.24	이주영	5	8
02.21	원아림	90	888	02.23	박우진	5	8	02.24	송숙영	5	8
02.21	유용수	90	888	02.23	박민수	5	8	02.24	송해민	5	8
02.21	유태옥	9	14	02.24	임혜정	5	8	02.24	김세현	5	8

등록일	성명	교구	구역	등록일	성명	교구	구역	등록일	성명	교구	구역
02.24	조채운	5	8	02.28	이성우	15	4	03.11	차시한	13	60
02.24	박연수	5	8	02.28	이성원	15	4	03.11	차지한	13	60
02.24	김단비	5	8	02.28	최진호	18	27	03.11	김영인	10	22
02.24	이호준	5	8	02.28	고혜숙	18	27	03.11	박다솔	11	29
02.24	노천영	5	8	02.28	성성모	6	31	03.11	박다현	11	29
02.24	조한솔	5	8	02.28	조한흠	12	39	03.11	박다혜	11	29
02.24	김가은	5	8	02.28	이선하	70	888	03.12	박다현	7	42
02.24	이지현	5	8	02.28	류영석	70	888	03.13	최예찬	17	20
02.24	정유미	5	8	03.04	유다원	9	46	03.13	박종성	16	42
02.24	김준기	5	8	03.04	정재인	14	1	03.13	이예은	18	2
02.24	송광재	5	8	03.04	박희도	5	8	03.13	김정수	9	18
02.24	김동연	5	8	03.04	원용현	5	8	03.13	이환	6	56
02.24	이성재	5	8	03.04	김원기	5	8	03.13	변용석	15	0
02.24	김명원	5	8	03.07	최세희	17	26	03.14	오영수	15	0
02.24	이윤영	5	8	03.07	박상우	12	65	03.14	신지원	9	0
02.24	조하늘	5	8	03.07	이지연	18	35	03.14	전우영	16	12
02.24	주새얀	5	8	03.07	김민성	2	8	03.14	강재원	15	0
02.24	송재희	5	8	03.07	박정애	1	0	03.14	홍민숙	15	0
02.24	김현민	5	8	03.07	김순목	2	0	03.14	박미혜	7	0
02.24	정승훈	5	8	03.07	이미숙	2	0	03.14	김윤석	6	0
02.24	이상빈	5	8	03.07	박현선	13	0	03.14	손세영	6	0
02.24	김대호	5	8	03.07	홍현성	13	0	03.14	김정수	8	0
02.24	이강희	5	8	03.07	최호일	13	44	03.14	윤기섭	3	0
02.24	양익준	5	8	03.07	조영숙	3	39	03.14	이규원	11	0
02.24	한요섭	5	8	03.07	이서현	2	41	03.14	최병국	11	0
02.25	송윤정	10	18	03.07	박춘희	7	53	03.14	장태화	11	0
02.25	송현주	10	18	03.07	노건희	8	51	03.14	김소양	5	0
02.26	박서인	17	3	03.07	박종민	4	23	03.14	김상희	5	0
02.26	박지우	17	3	03.07	문지현	9	29	03.14	이종인	8	0
02.26	박지현	17	3	03.08	윤현빈	15	43	03.14	송훈	4	0
02.26	강민지	17	3	03.09	이인식	5	0	03.14	이희태	4	0
02.26	송하연	13	3	03.10	차수림	13	60	03.14	이은화	4	0
02.26	방수현	5	43	03.11	이혜정	4	30				
02.27	신재영	2	36	03.11	이혜선	4	30				

(77은 국제예배, 80·88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례·입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신 것을 일평생

변치 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정회원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 담임목사 -

신입일	신급	성명	교구	구역	신입일	신급	성명	교구	구역	신입일	신급	성명	교구	구역
2.17	병상세례	박용기	17	5	3.7	입교	유선웅	18	36	3.7	입교	최승원	1	34
3.7	입교	구형주8	39		3.7	입교	유지수	14	8	3.7	입교	김진경	8	4
3.7	입교	권호찬	2	11	3.7	입교	이은규	11	27	3.7	입교	원유라	8	4
3.7	입교	김도형	18	33	3.7	입교	이정훈	3	44	3.7	입교	이나리	19	41
3.7	입교	김영섭	11	21	3.7	입교	이지원	17	59	3.7	입교	김성국	9	8
3.7	입교	김예은	14	50	3.7	입교	이지훈	16	16	3.7	입교	최경원	17	69
3.7	입교	김예진	15	64	3.7	입교	이현아	19	19	3.7	입교	남명희	18	29
3.7	입교	김은영	8	2	3.7	입교	임도움	3	10	3.7	입교	신민아	90	888
3.7	입교	김태민	7	54	3.7	입교	임준호	10	24	3.7	입교	송민영	2	28
3.7	입교	김태현	12	23	3.7	입교	임유상	4	23	3.7	입교	하주훈	4	44
3.7	입교	김한희	15	47	3.7	입교	임재천	10	37	3.7	입교	강혜승	70	888
3.7	입교	노혜강	1	28	3.7	입교	장해진	7	54	3.7	입교	오현정	70	888
3.7	입교	나송주	7	13	3.7	입교	전지수	1	60	3.7	입교	강은혜	70	888
3.7	입교	매희조	1	24	3.7	입교	정진일	7	41	3.7	입교	이기혁	80	888
3.7	입교	문채영	12	22	3.7	입교	정하진	15	65	3.7	세례	강민	2	3
3.7	입교	민인경	7	36	3.7	입교	조민혁	11	15	3.7	세례	공석현	2	4
3.7	입교	박정빈	17	11	3.7	입교	조서호	10	71	3.7	세례	김승기	8	18
3.7	입교	박정원	5	32	3.7	입교	조한아	8	40	3.7	세례	김지민	10	64
3.7	입교	박지원	7	66	3.7	입교	지정환	17	41	3.7	세례	김지연	5	6
3.7	입교	변부용	8	2	3.7	입교	차우림	10	52	3.7	세례	김태진	12	64
3.7	입교	변시몽	8	2	3.7	입교	최송이	7	52	3.7	세례	김혜승	14	55
3.7	입교	손예인	7	41	3.7	입교	최은정	2	47	3.7	세례	김홍동	6	16
3.7	입교	손주영	12	5	3.7	입교	최한나	14	10	3.7	세례	김홍정	6	16
3.7	입교	신종윤	12	62	3.7	입교	하진욱	15	26	3.7	세례	김홍주	6	16
3.7	입교	신지윤	12	62	3.7	입교	한경욱	14	54	3.7	세례	박혜원	10	17
3.7	입교	안재현	16	39	3.7	입교	한창엽	2	36	3.7	세례	방현우	2	63
3.7	입교	오경택	15	53	3.7	입교	최광영	12	24	3.7	세례	배운서	8	45
3.7	입교	오영록	2	35	3.7	입교	남혜연	17	22	3.7	세례	성대경	3	2

신급일	신급	성명	교구	구역	신급일	신급	성명	교구	구역	신급일	신급	성명	교구	구역
3.7	세례	손미나	17	51	3.7	세례	지숙녀	9	37	3.7	세례	강민정	8	51
3.7	세례	송선아	2	13	3.7	세례	송영권	7	47	3.7	세례	조현주	13	31
3.7	세례	송인식	2	13	3.7	세례	남서연	17	22	3.7	세례	안유진	80	888
3.7	세례	오학근	10	5	3.7	세례	김동욱	1	38	3.7	세례	허재윤	9	13
3.7	세례	원진경	6	2	3.7	세례	안경애	15	3	3.7	세례	김수영	12	30
3.7	세례	이근영	7	49	3.7	세례	임도영	15	8	3.7	세례	한진상	16	25
3.7	세례	이동연	4	41	3.7	세례	김희태	88	888	3.7	세례	홍태열	3	4
3.7	세례	이승은	7	26	3.7	세례	윤성원	90	888	3.7	세례	구혜주	14	42
3.7	세례	장혜영	2	4	3.7	세례	이동준	1	1	3.7	세례	이지윤	1	17
3.7	세례	최근영	19	38	3.7	세례	김유리	10	47	3.7	세례	양윤모	6	55
3.7	세례	최석규	8	49	3.7	세례	김미자	7	59	3.7	세례	김성심	6	55
3.7	세례	송지현	17	6	3.7	세례	이순덕	2	66	3.7	세례	이영진	3	31
3.7	세례	이윤희	7	49	3.7	세례	조정자	10	4	3.7	세례	이명진	2	52
3.7	세례	이윤지	7	49	3.7	세례	정규희	9	40	3.7	세례	김정민	80	888
3.7	세례	박민정	10	1	3.7	세례	김윤기	7	31	3.7	세례	강의철	80	888
3.7	세례	권도희	70	888	3.7	세례	조재웅	80	888	3.7	세례	김미경	5	8
3.7	세례	김용식	3	28	3.7	세례	신혜수	16	26	3.7	세례	양수정	90	888
3.7	세례	김순애	3	28	3.7	세례	박부영	6	21	3.7	세례	이승미	70	888
3.7	세례	김가람	3	28	3.7	세례	김태영	18	29	3.7	세례	임규석	70	888
3.7	세례	김민선	80	888	3.7	세례	박신용	90	888	3.7	세례	임소연	70	888
3.7	세례	김종호	14	4	3.7	세례	이원기	11	7	3.7	세례	이주연	80	888
3.7	세례	김진호	9	37	3.7	세례	김가운	14	54	3.13	병상세례	이주수	10	59

~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 ~

‘부활의 기쁨으로 평화의 씨를 뿌리자’

- * 일 시 : 4월 4일(주일) 새벽 5시
- * 장 소 :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
- * 주 제 : ‘부활과 화해’
- * 설 교 :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 * 주 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

이철신 담임목사님
TV방송 설교(안내)

* CTS 기독교TV
‘생명의 말씀’

*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20분

‘한경직 목사님 10주기 추모행사’ 계획

예수사랑 나라사랑, 예수사랑 이웃사랑의 참사도 한경직 목사님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복음을 통한 정신혁명으로 이 땅에 참다운 민주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민족의 지도자였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 백성에게 내어준 사랑의 목자였습니다.

이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와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는 10주기 추모행사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기념사업

- 1) 추모예배 : 4월 18일(주일) 17시 영락교회 본당(방지일 목사 설교)
- 2) 성묘예배 : 4월 19일(월) 11시 영락동산
- 3) 우거처 순례 : 성묘예배 후 남한산성 우거처
- 4) 추모음악회 : 4월 25일(주일) 18시 베다니홀(갈보리찬양대)
- 5) 농어촌목회자수련회 : 6월 21일(월)~23일(수), 영락기도원
- 6)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바자회 : 9월(베다니 광장)
- 7) 한경직 상 제정 및 시상 : 12월(선교·교육·봉사 부문, 격년으로 순차적 시행)

2. 학술사업

1) 추모세미나

- ① 일 시 : 4월 28일(수), 숭실대학교 한경직목사기념관
- ② 주 제 : 한경직 목사와 선교
- ③ 발 제 : * 한경직 목사의 선교사상 <박명우 경민대학교수(에딘버러 선교학 박사)>
 * 한경직 목사의 국내선교사역 <변창욱 장신대학교수(프린스턴 선교학 박사)>
 * 한경직 목사의 해외선교사역 <안교성 장신대학교수(캠브리지 교회사 박사)>
 * 한경직 목사의 북한선교사역 <하충엽 영락교회목사(에딘버러 선교학 박사)>

2) 국제세미나: 국제평화·화해컨퍼런스

- ① 일 시 : 10월 31일(주일) ~ 11월 4일(목), 영락교회
- ② 주 제 : ‘평화와 화해를 위한 한경직 목사의 삶과 사상’
- ③ 발 제 : 국내외 지도자 20여 명
- ④ 참가자 : 70개국 교회 지도자 및 신학자 140명, 국내 60명(총 200여 명)

3. 출판사업

1) 단행본 출판

- ① 나의 감사 (두란노): 한경직 목사 구술 자서전
- ② 사랑의 배달부 한경직 (두란노): 한경직 목사 전기 (아동용)
- ③ 명품설교집 (두란노): 절기·구원의 확신·시사 설교 (전 3권)
- ④ 논문집 (송실대): 한경직 목사 관련 논문집
- ⑤ 기독교란 무엇인가? (대성닷컴): 한영판 개정
- ⑥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홍성사): 개정판 (김수진 저)

2) 전집 출판

- ① 영문전집: 전기, 설교, 강연, 자료, 논문(전 12권)을 묶어 영문으로 번역 및 출판
- ② 미디어전집: 문서설교(1,145편), 음성설교(650여 편), 비디오설교(30여 편), 다큐멘터리(10여 편), 방송대담(10여 편), 인터뷰등 DVD 제작



4. 홍보사업

1)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2) 만화·애니메이션 공모전

- 3) 해외전시: 에딘버러선교사100주년대회(6월)·로잔세계선교대회(11월)에 한경직 목사 부스 설치 및 홍보
- 4) 유품전시회: 4월 21일(수) ~ 5월 22일(토) (송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 5) 추모사진전: 4월 18일(주일) ~ 4월 30일(금) (베다니광장)
- 6)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홈페이지 구축

5. 건립사업

1) 역사자료실: 한경직목사기념관 5층

2) 영락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하남시(대지 300평, 건평 560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3) 남한산성 우거처 정비사업: 소규모 전시관 신축, 기도처 정비, 화단 조성

한경직 목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감추며 오로지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밝히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이제 10주기를 추모하며 “네가 어디 있느냐?”는 그분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과거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제공】

2010년 새 학년 맞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특별새벽기도회'

주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



2010년 새 학년을 맞이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2월 22일(월)부터 2월 27일(토)까지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매일 아침 6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기는 영아 유아부에서부터, 세상의 리더를 꿈꾸는 능률한 대학, 청년부와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모이는 시간이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라는 큰 주제 아래 '간절한 기도' (22일-유·초·소년부), '기도의 응답' (23일-중등부), '철저한 준비' (24일-대학부), '도전의 극복' (25일-영·유아·유치·사랑부), '사회적 결속' (26일-고등부), '정신적 결속' (27일-청년부) 등이 그 날의 제목으로 주어진 가운데, 한 주일 동안 김성수 목사(고등부 담당)와 유창원 목사(청

년부 담당)의 인도로 시작하여 느헤미야서(1장~8장)를 중심으로 한 이철신 담임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인 22일(월-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김성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기도회에서 이철신 담임목사님은 '간절한 기도'란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포위 당했을 때 지도자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며,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철저한 준비를 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사랑부 어린이들이 참석한 25일(목)은 유창원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었는데, 이철신 담임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며 새 학년을 시작하는 학생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청년들에게는 도전과 극복을 일깨우는 말씀을 해주셨다.

매일 말씀 후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과 새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고, 개인 하나 하나의 기도제목과 가지고 각 부서의 목사님들이 한 학생, 한 학생들을 만나 뜨거운 안수기도와 대화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 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귀한 자녀들이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공 : 송재봉 집사(사랑부 교사)】

- 갈릴리찬양대의 부활절 음악예배 안내 - '새 창조, 새 생명을 노래하는 부활절'

'새 창조, 새 생명을 노래하는 부활절 음악예배'라는 타이틀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2010년 4월 4일 주일 찬양예배 후 베다니홀에서 열린다.

음악부가 주최하고 갈릴리찬양대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지휘에 조성환, 오르간 김우경, Soprano, 박미자, Tenor 이영화, Bass, 박홍우와 함께 알테 무지크 서울(Alte Musik Seoul - 악장 : 한혜리)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연주곡은 하이든의 천지창조로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성도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의 감동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피코리의 노랫소리, 울부짖는 사자, 맑은 물이 솟는 샘, 자옥한 안개, 광야의 폭풍우, 천둥소리에서 비구름이나 눈 내리는 정경에 이르기까지 천지창조와 에덴동산의 아름다움을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3부로 나누어진 오라토리오로 관현악 서곡을 포함하여 총 32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와 제2부는 6일간에 걸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과정이 세 천사 <가브리엘(Sop), 우리엘(Ten), 라파엘(Bass)>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고, 제3부에서는 에덴동산에서 노니는 아담(Bass)과 하와(Sop)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하는 갈릴리찬양대는 약 7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2010년 3월부터는

예배 후 정구 연습시간 외에 시간을 더 늘려 음악적 기량에 박차를 가했고, 대원 모두가 돌아가며 금식하는 등 영성과 음악을 함께 준비해 왔다.

영·육간으로 정성껏 준비한 부활절 음악회에 성도여러분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힘차고 웅장하며 섬세하게 표현한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음악적 감동을 넘어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영적인 감동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

【갈릴리찬양대 제공】

영락교회 2010 전도계획 - 선한이웃, 사랑나눔 프로젝트

- * 목적 : 영락교회 주변 지역 전도
- * 목표 : 영락교회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전도한다.
교구별, 지회별로 지역을 분배하여 전도한다.
- * 표어 : “전도하는 영락! 복음특구 명동!”

- ◆ 2010년 전도지역 : 저동2가
(을지로3가역-충무로역-영락교회)
- ◆ 2011년 전도지역 : 저동1가
(을지로입구-서울중앙우체국-명동성당)

1. “선한이웃, 사랑나눔 프로젝트”

- 명동은 서울의 문화 중심지이자 많은 외국인들의 쇼핑 중심지이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복음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명동이다.
- 우리 영락교회는 명동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 먼저는 교회 주변을 전도하며 교회를 홍보하여, 점차 명동 전체를 복음화 하도록 한다.
- 영적 도해를 통해 지역 사회를 조사하고 기도하며 관계를 형성하여 전도한다.
- 도널드 맥가브란의 「spiritual mapping」
- 2009년 충동원 전도를 통해 교구별 전도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어려움은 지역적으로 먼 곳에서의 전도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동과 65년의 역사를 함께한 영락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교회 인근 지역에서부터 섬기는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영락교회 주변의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전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이다.

2. 세부 계획

- 1) 충무로와 을지로3가 사이의 지역을 19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교구로 분배한다. <각 교구에서 각 구역으로 배분 (책임자 : 구역장)>
- 2) 각 지역의 상가와 점포의 신앙 여부를 조사한다.
- 3) 각 지역의 상가와 점포를 자주 방문하여 관계를 형성한다.
- 4) 각 지역의 회사 직원들을 전도한다. <신우회 등 연결>
- 5) 지역 사회를 섬긴다. <정기적 휴지줍기, 행복 나누기 행사 등>
- 6) 지역 사회에 영락교회를 홍보한다.

3. 세부 지침

- 1) 메뉴얼 제작 및 배포 - 3월 26일(심방준비회)
- 2) 선한이웃, 사랑나눔 홍보영상 - 3월 28일(1부~5부)
- 3) 방문 및 관계 형성 - 3월 28일~4월 3일
- 교구별 전도 대상 지역에서 식사와 모임을 가짐 (첫 접촉)
- 4) 성금요일 연합 모임 - 4월 2일
<사랑나눔 프로젝트 소개 (교구별 지침)>
- 5) 부활주일 계란 나누기 - 4월 4일~10일
(교구별 전도대상지역에)
- 교구별 전도 대상 지역에 계란 나누어 주기. (약 500여개 각 교구별 제작)
- 신앙 여부 파악
- 6) 구역별 전도 대상 작성 - 4월 23일(심방준비회) *작성서를 선교부에 제출

【선교부 제공】

2010년 권사회 헌신예배 새가족 환영회와 겸하여 드려

2010년 권사회 헌신예배가 지난 2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드려졌다.

새가족 환영회를 겸하여 드린 이 날 헌신예배는
김문옥 권사(권사회 회장)의 인도로 시작하여 박재
학 목사(권사회 담당)가 ‘부르심’ (요 15:16~17)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영락교
회 권사로, 또 새가족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인도자의 신임 권사 환영사에 이어 신임권사
103명을 대표하여 권오란 권사(용산교구)가 ‘교회
에 덕을 세우는 권사의 직무를 다하겠다’는 답사
가 있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등록 및 교육수료자를 환영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
정일 목사(새가족부 담당)의 새가족을 환영하는 인
사와 함께 꽃다발과 박수로 환영했으며, 차순진 성
도(강북·도봉교구)의 간증이 있었다.

예배 후에는 제1식당에서 다과와 함께 새가족과
교구교역자와의 만남의 시간이 가졌다.

【취재 : 유승호】

제19기 북한선교학교 안내

1. 일시 : 3월 21일~5월 30일 매주일 오후 1시~2시 30분
2. 장소 : 50주년기념관 503호
3. 대상 및 문의 : 전교인 선교부(010-5494-1328)

일정	강 의 제 목	강 사	비 고
3월 21일	개강예배 북한선교의 성서적 배경과 방향성 북한선교센터 선교전략 및 사역현황	권오성 목사 윤응용 집사	북한선교센터 부소장
3월 28일	급변하는 통일정책	김천식 국장	통일부
4월 4일	북한 교회사	이덕주 교수	감신대
4월 11일	안정적 통일 로드맵	이상만 교수	중앙대 교수
4월 18일	자유인사람 생활의식과 정착지원정책	윤인진 교수	고려대학교
4월 25일	화폐개혁이후 북한내 경제변화	동용승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5월 2일	북한의 기아실상	장남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5월 16일	북한선교의 환경조성	강인덕 집사	전 통일부 장관
5월 23일	디아코니아선교-NGO 역할	김병로 교수	서울대평화통일연구소
5월 30일	간증, 폐회예배 및 수료식	하충엽 목사	북한선교센터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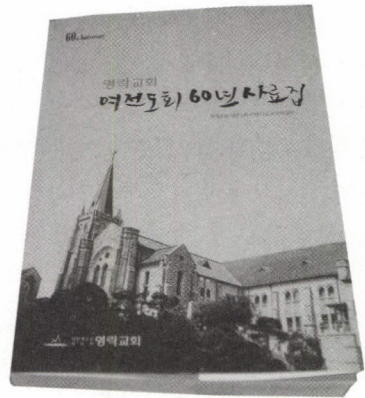
‘영락교회 여전도회 60년 사료집’ 발간을 마치고



우리 영락교회 여전도회가 ‘여전도회 60년 사료집’을 출판하고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교회 여전도회는 지난 3월에 1946년 8월에 시작하여 2006년까지의 1,2,3,4 여전도회원들이 애써 일한 것들을 엮어서 60년 사료집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여전도회 60년 사료집’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위해 일한 흔적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사명인 동시에, 미래의 여전도회의 자리매김에 중요한 자료로 남기를 바라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료집이 가



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도전받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 출판감사예배에 말씀과 기도, 축하 격려사를 해주신 하충엽 목사님, 이정호 장로님, 이광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출판을 위해 장기간 애써주신 증경회장,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편찬위원장 조의도 권사 —

〈사진은 예배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참석자 일동과 여전도회 60년 사료집〉

정우식 목사님, 송탄신흥교회 부임



정우식 목사님(사진)이 지난 3월 21일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송탄신흥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신 정 목사님은 부임 이래 예배위원회, 안수집사회, 사회봉사

부, 중등부와 종로·성북교구, 강북·도봉교구 등을 맡아 사역해 오셨다.

송탄신흥교회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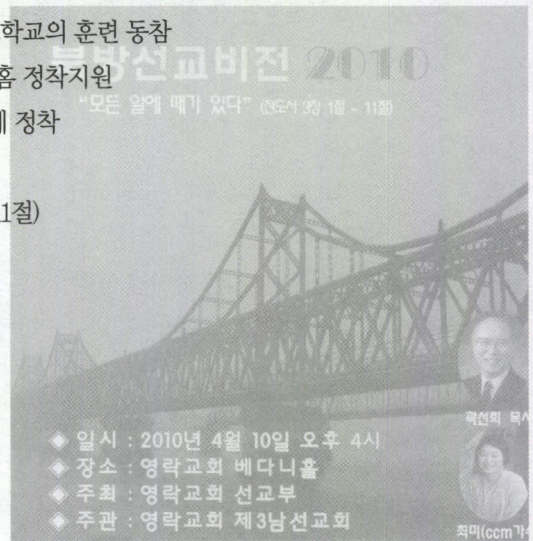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596-78

전화 : 031) 665-8101

'북방선교비전 2010' 행사 개요 및 안내

[행사개요]

- (1) 행사명칭 : 북방선교비전 2010
- (2) 취 지 : 한반도 주변국의 선교적 상황을 분석하고, 북방선교의 전략을 수립하여, 북한접경지역의 교회건축과 북한 어린이 영양공급 지원 및 봉헌한 처소교회를 지원하여 정착하게 한다.
- (3) 주요목적 : 1) 청장년의 북방선교비전 제시와 북방선교사역의 구체적 실천
2) 북방선교의 교육정책 실천 - 북한선교학교의 훈련 동참
3) 북한접경지역의 처소교회개척과 미션홈 정착지원
4) 자유인 예배부의 신앙교육 멘토링 관계 정착
5) 북한지역의 어린이영양공급 지원
- (4) 주 제 :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 11절)
- (5) 주 강 사 : 곽 선 희 목사 (소망교회 원로목사)
- (6) 특별공연 : 최 미(찬양사역자), 이 옥(탈북민 사역자)
- (7) 강연, 특별공연 일시 및 장소
1) 2010년 4월 10일(토 16:00 - 19:00)
2) 영락교회 베다니홀
- (8) 주 최 : 영락교회 선교부
- (9) 주 관 : 영락교회 제3남선교회
- (10) 후 원 : 북한선교부/1,2,4남선교회/1,2,3,4여전도회/권사회/안수집사회/사회봉사부/북한선교학교수료자연합회/청년회/대학부



【제공 : 최종영(3남선교회 서기)】

유 아 세 례 (예고)

- * 유아세례식(예고) : 5월 2일(주일) 찬양예배 시, 본당
(생후 24개월 이하의 유아로 부모가 본 교회 등록된 세례교인)
- * 유아세례 부모교육 : 4월 18일(주일) 오후 3시, 봉사관 지하 예배실
4월 25일(주일) 3부예배 후, 뽕엘예배실
- * 접수 : 4월 18일(주일) 부모교육 시 당일만 접수합니다.

에셀만들린 앙상블, '제4회 정기 연주회' 안내

* 일 시 : 2010. 4. 24(토) 오후 6시

* 장 소 : 영락교회 선교관

* 연주곡 : <1부> Once Upon A Time, 샤론의 꽃 예수, 이 기쁜 날,

Serenade, Disney Fantasy 등

<2부> 호산나 하는 높은 곳에, 백만송이 장미, 축복, Colombine, Oblivlon, 역마차여행 등

'에셀만들린 앙상블찬양단'은 창단 11주년을 맞
는 선교부 소단체로서, 만들어진 합주를 통해서 하나
님을 찬양하며 선교활동을 하는 25명이 활동하는
선교봉사 단체입니다.

그간 한양대병원교회, 이대동대문병원교회, 복
지시설 등을 순회하며 찬양연주를 통하여 선교사
업에 동참하였고, 교회 내의 각종 행사에 특순 연주로 은혜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창단 7주년에는 태국의 한인교회와 라오스 난민수용소 등을 방문, 연주와 선교기금 기부 등을 통하여 하나
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문화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으며, 현재는 영락기도원 예배찬양 합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감사와 찬양과 섬김의 정신으로 이야기가 숨 쉬는 제4회 정기연주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경순 권사 제공】

은퇴제직 상조회 신입회원 가입안내

* 가입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은퇴한 제직

* 가입일시 : 6월 30일 까지 (3월 31일까지 가입하면 혜택 있음)

* 가입장소 : 매주일, 50주년기념관 1층 회비수납장소

(2월 만남지 및 교회 홈페이지 참조)

◇바로잡습니다.

'만남' 지 3월호 2쪽 '말씀의 묵상' 내용 중 '거룩한 독서(Lexio Divina)'는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로, 17쪽 상단 사진설명 중 '극동방송'은 '기독교방송'으로, 또 70쪽 하단 은퇴여전도사 수상
기사 본문 중간 '최은신'은 '최신은'으로 바로잡습니다.

이달의 성경 완독자 (2)

* 본 완독자 명단은 3월호에 이어 두 번째로서,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둘째주일까지 완독한 성도님들입니다. 지면 사정상 성명과 교구만 기재하였음을 양해 바라며, 순번, 구역, 직분 등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괄호 안은 교구)
- 홍보출판부 -

모연순(16), 김영순(10), 조순영(14), 김옥순(4), 신동애(7), 김동호(4), 윤금련(3), 성열철(7), 유숙경(7), 김귀이(12), 김영희(16), 김미화(11), 오재석(11), 이남연(17), 김은선(1), 이동은(16), 한희자(8), 오호심(7), 설옥정(5), 이정열(15), 오사철(15), 이옥수(1), 박인규(7), 이영숙(18), 김신중(13), 정숙자(12), 안성호(11), 김영자(16), 송재옥(12), 이해옥(13), 전해환(7), 최장우(8), 김형석(18), 배봉숙(8), 나말예(8), 유정식(13), 지규희(4), 최명호(4), 홍현숙(8), 김인옥(2), 서군자(7), 진정미(12), 김신자(6), 이한임(16), 황분희(13), 권오순(2), 현희복(6), 김귀분(6), 이명옥(10), 성옥순(9), 최영순(2), 박석균(10), 김금옥(4), 조순애(14), 이봉옥(3), 권미영(4), 김순희(7), 유보석(4), 박재학(4), 임옥규(5), 강청자(3), 이종완(12), 송순기(16), 이정자(4), 박선미(12), 김영숙(2), 유순희(14), 유영수(10), 최병옥(6), 심미경(11), 정오도(12), 황경애(15), 최순자(5), 장정희(9), 김진순(9), 임성희(16), 이영자(9), 이정희(14), 최민자(8), 박승금(9), 전연수(3), 이종서(10), 이정희(15), 고정자(9), 박정자(14), 이광실(15), 이순희(11), 김효영(8), 김성애(18), 박성준(16), 김순자(8), 이종삼(2), 정숙자(19), 이인하(17), 김유근(11), 차길자(9), 이영숙(9), 강현영(5), 김은희(14), 윤길순(9), 김재경(11), 박순춘(4), 임정옥(14), 이양남(1), 맹문희(14), 김화두(11), 채복희(16), 이화자(2), 조재순(2), 박세도(7), 구길심(14), 김창직(8), 정영자(14), 유정자(9), 최혜순(12), 홍광자(4), 최완석(7), 김혜경(2), 김혜경(2), 배대현(11), 이용성(8), 최정화(8), 강영순(9), 김기순(15), 김미정(11), 윤정모(11), 조순영(14), 김영숙(4), 강행자(6), 고성신(7), 권정순(6), 문명선(4), 김귀이(12), 김길순(8), 김선숙(8), 김영심(15), 남영희(18), 신명자(16), 유재옥(6), 고을한(12), 이인숙(12), 임웅선(6), 윤상희(7), 김정원(9), 홍기순(7), 채선학(9), 오기승(18), 정은희(4), 백인남(5), 이소현(7), 이희관(9), 고송식(11), 이세정(11), 김남식(19), 서미자(11), 장정자(9), 임장원(4), 황숙희(2), 구예휘(18), 서종희(9), 윤양(4), 김은자(12), 황경애(15), 김남복(12), 최윤미(5), 계모세(6), 경금란(11), 한순자(8), 박광숙(12), 김미영(8), 양웅미(5), 이부선(6), 이화자(14), 진정자(2), 이소영(3), 유영순(8), 이영신(5), 김순희(7), 김승연(1), 박도화(19), 김현숙(1), 김미선(9), 추복남(7), 윤홍선(18), 김두금(16), 남궁문옥(3), 민영환(6), 오정선(8), 이정자(9), 박영일(18), 이정자(9), 박호정(13), 손영록(2), 김수진(7), 임설자(14), 양혜성(15), 명규남(2), 김점환(16), 박현숙(8), 임연희(1), 손영미(1), 이기옥(4), 서경희(11), 양신자(11), 김신향(18), 이상은(19), 이송애(19), 김인자(9), 권명자(2), 임태호(3), 유영순(8), 민기일(13), 나춘옥(2), 김향옥(12), 박래정(8), 최승희(9), 김병원(11), 이석준(17), 장정희(9), 이광자(12), 최찬식(16), 석청자(11), 박정자(8), 이부미(12), 유광자(13), 홍영자(13), 신혜원(13), 심양섭(8), 이은섭(15), 장원숙(5), 장희영(16), 장미옥(12), 김미영(8), 방기화(3), 이정옥(7), 이준화(9), 홍천순(18), 황금자(2), 이신옥(4), 김약수(6), 이순자(17), 김문수(3), 조현숙(9), 임양보(7), 박래자(16), 심재옥(9), 이한나(8), 임장원(4), 정도희(13), 유당주(6), 김동원(15), 박선학(99), 이용규(12), 채숙자(17), 김미희(18), 임인택(3), 이산옥(2), 김지영(90), 성경숙(4), 윤정자(17), 이몽래(8), 김석영(2), 박희경(5), 이영순(14), 남연자(8), 박순자(11), 이정희(14), 김영순(13), 오사철(15), 정종실(18), 허영희(10), 조은봉(19), 이경덕(1), 김미숙(8), 김희자(8), 양등자(9), 장한경(8),

한창숙(19), 구금순(11), 윤금숙(17), 임혜자(1), 강희보(4), 구명오(5), 박순남(6), 박인숙(12), 윤순옥(12), 임영이(3), 국금선(3), 조경림(7), 여재옥(19), 최효순(16), 김진순(9), 이복희(4), 강영순(9), 김귀이(12), 이영숙(18), 서군자(7), 임승찬(4), 김연희(13), 김은희(14), 이인순(5), 문영미(14), 김삼선(10), 김순화(14), 김영자(12), 김옥렬(8), 김창재(19), 김혜숙(11), 문광순(3), 서금분(15), 주상호(11), 이경희(14), 한금자(13), 이은복(7), 안영락(18), 김제근(2), 김상규(18), 김찬희(12), 이상길(18), 박순옥(13), 김영애(11), 강청자(3), 안영락(18), 정옥린(3), 고영숙(12), 김혜자(15), 김경일(16), 장청자(9), 홍옥순(12), 김용하(10), 김정애(15), 이영자(9), 김희정(12), 안원희(19), 전정자(13), 김희덕(3), 유복남(9), 정경영(11), 최성은(10), 이현일(7), 양우진(3), 김영숙(2), 이옥직(19), 김중요(12), 양수연(17), 이철기(15), 정운숙(16), 정송자(9), 김귀분(6), 설미경(19), 문순자(18), 이명선(7), 이종찬(9), 최해운(15), 고기숙(7), 정숙자(13), 독고순(14), 송영자(8), 김숙자(3), 강현영(5), 이영자(7), 이종서(10), 박애준(1), 옥지원(13), 유화자(18), 이용성(8), 이종근(9), 임효정(17), 한혜원(3), 권오순(2), 이용희(13), 차문자(13), 김동순(3), 장현순(16), 김문자(6), 장복순(3), 김인옥(2), 최주철(19), 박수진(12), 배대현(11), 김명혜(10), 박금주(4), 장혜주(16), 김향길(17), 신찬숙(8), 이혜숙(15), 조경자(15), 구혜숙(7), 박복실(11), 김옥경(12), 모연화(15), 장경화(10), 조건진(11), 표은아(11), 강현철(13), 오인숙(6), 박옥분(9), 오영희(16), 이정주(7), 이은엽(17), 정춘택(11), 유현희(3), 박경자(9), 김방옥(2), 오세호(15), 이창주(14), 임옥규(5), 장용학(14), 정하진(3), 김미열(15), 이신영(7), 김형석(18), 윤주황(3), 김상여(12), 유정애(6), 이종삼(2), 김영순(10), 최인숙(3), 송재옥(12), 김단오(9), 설옥정(5), 장정희(9), 황분희(13), 김신중(13), 최창호(15), 박재원(3), 우효숙(6), 조성현(13), 조용신(6), 한정숙(5) <이상 430명>

‘성경 2만 번 읽기운동’, 완독 성도 3명에 표창



2010년 ‘성경 2만 번 읽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장년부가 첫 완독자 등 3명에게 상을 주었다.

성경 2만 번 읽기 운동은 올 해 우리 교회의 큰 계획으로서 담임목사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0일 현재 총 1천여 명이 완독하는 등 날이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으며, 타 교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장년부는 이같은 계획이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바라며 첫 완독자 등 3명을 표창하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14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시상하여 상을 받게 된 성도는 다음과 같다.

* 제일 먼저 완독한 분 :

윤인숙 시무권사(14교구 17구역)

* 제일먼저 성경읽기 표를 제출한 분 :

이예인(고등부 학생-17교구 26구역)

* 65번째(교회 창립65주년을 기념하여) 완독하

신 분 : 김애자 시무권사(8교구 54구역)

[제공 : 장년부]

영락유헬스고등학교, 개교 및 입학 기념 예배



유헬스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된 영락유헬스고등학교의 개교 및 입학 기념예배가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청룡동 동교 강당에서 드려졌다. 이는 1952년 6월 10일, 영락교회 내에 청소년 성경구락부 중등부로 개교한 이래 58년의 역사를 이어온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탈바꿈하여 드린 첫 개교예배이다. 입학식과 함께 진행된 이 날 예배는 강유석 교감의 사회로 안재완 교목의 기도와 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학교법인 영락학원 이사장인 이철신 목사의 '경천애인(敬天愛人)'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입학생대표의 선서, 박승규 교장의 훈화와 교가제창이 이어졌다. 이철신 목사는 마가복음 12장 29절-3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한경직 목사의 설립정신에 따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실하고 봉사적인 인물을 길러내는 건강한 터전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였다.

이어서 유헬스고등학교 개교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 (주)피지오랩(대표 김기련), (주)비트컴퓨터(대표 전진옥), (주)바이오스페이스(대표 차기철), (주)메디아나(대표 길문중), (주)시온메디칼(대표 안영선) 등 협력업체 대표와 유헬스특성화

고등학교 전환을 주도한 김형운 전임교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순서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유헬스를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70여 개의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영락유헬스고등학교는 다양하고 우수한 유헬스 전문교육과정 및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소질, 적성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글로벌건강정보기술(Global Health IT)시대를 이끌어 갈 알찬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 날 개교식을 하게 되었다. 이는 2010학년도 유헬스 분야에서 국내 최초 특성화고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유헬스전문가는 의사와 환자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구실을 한다. 이들은 IT시스템을 통해 환자들 건강 상황을 원격으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이나 의사에게 연결시킨다. 또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하는 행정 전산업무등도 유헬스 전문가 몫이다. 각종 의료정보를 시각화하거나 콘텐츠를 개발하는 분야도 있다. 현재 산업자문기관인 한국 e-헬스발전협의회가 이 같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헬스관리사 전문가자격증 제도를 준비 중인데, 영락유헬스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선수과목 이수 등으로 자격증 취득에도 유리한 혜택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기존 교과 내용과 의료유비쿼터스 IT학제를 함께 배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의료데이터베이스 관리, 인체생리학, 의학용어 등 특화된 교과과정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영락유헬스고등학교 제공]



2010 후원자모집캠페인

나눔은 생활입니다

- 일시 : 4월 11일(주일) 오전8시~오후4시
- 장소 : 영락교회 베다니광장 및 봉사관 마당
- 주최 :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 협찬 :  신한은행 을지로지점

- 내 용 : 신규후원자모집, 홍보부스설치, 운영시설 및 과련기관 공연, 이벤트 등
- 문의 ☎02)2265-7023 / www.ynswf.co.kr

‘칠레영락교회’에 오천만 원 긴급지원



아이티 지진 피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난 2월 27일 칠레에서 진도 8.8의 강진이 일어나자 우리 영락교회는 긴급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칠레영락교회에 보내 피해복구를 도왔다.

칠레영락교회는 이 돈을 전달 받자 곧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도시인 콘셉시온의 성베드로교회 벽 복구에 1,000달러, 빈야테마르의 플라이안차교회 벽과 대들보 수리에 1,000달러, 임마누엘교회 천장과 벽 수리에 1,000달러, 수도 산티아고의 사뻐도레교회 수리에 1,200달러를 지원하는 등 교회당 복구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한인 자재상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건축자재로 집 20채를 지어주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우리 교회의 지원금은 슬픔을 당한 현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1982년 칠레 첫 선교사 파송 이후 2010년 칠레 선교지를 완전히 철수하였으나 칠레영락교회는 여전히 선교에 힘쓰는 디아스포라 한인선교사역의 전형으로 칭송받고 있다.

사진은 칠레영락교회(왼쪽)와 쓰나미 피해로 파괴된 한 교회(오른쪽) 모습.

【제공 : 선교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예고)

* 주제 : 주님의 고난주간

* 일시 및 장소 : 3월 29일(월) ~ 4월 3일(토) 오전 6시, 본당



영락문화공간 4월 프로그램 안내

4/4 영화상영 :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The Passion of Christ)

마지막 만찬 후 기도하기 위해 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은 유다의 밀고로 체포돼 예루살렘으로 끌려온다. 군중들은 빌라도를 향해 예수의 처형을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머문 마지막 12시간의 행적을 사복음서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배우 멜 깁슨이 감독,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 1인 3역을 맡았다.

4/11 영화상영 : 마농의 샘 1부 (Jean De Florette)

1920년 프랑스. 병역을 마치고 고향 프로방스로 돌아온 위골랭은 백부 세자르의 집 근처에 정착한다. 그러나 자신의 땅에 샘이 없다는 사실에 위골랭은 세자르와 짜고 인접한 카모완가의 샘물을 막아버린다. 1986년 프랑스 내셔널 시네마 아카데미 그랑프리. 전미 영화비평가협회 최우수영화상 수상작.

이브 몽땅, 다이엘 오페유, 제라르 드 빠르디유 주연.

4/18 영화상영 : 마농의 샘 2부 (Manon Des Sources)

샘을 둘러싼 음모로 죽은 장의 딸 마농은 양치기 처녀로 성장한다. 그녀는 마을 주민을 아버지를 죽게 한 자들과 공범으로 여긴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 정의와 심판의 문제를 다룬다. 프랑스의 국민작가 마르셀 파농이 어린 시절에 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는 야성적인 처녀'를 소설로 옮긴 이야기를 끌로드 베리 감독이 영화화했다.

4/25 찬양 교실 :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함께하는 국악 찬양 마당

한국음악을 전공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영락 문화선교(CCW) 국악찬양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꾸미는 찬양의 시간. 흥겨운 우리 가락의 새 찬양곡들을 선보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국악찬양도 함께 부른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다.

*일 시 : 매주일 오후 2시 40분

*장 소 : 50주년기념관 지하 1층 소강당

*문 의 : 문화선교(CCW) ☎2280-0148

〈 문화선교(CCW) 문화기획팀원 모집 〉

* 자격 : 문화선교에 비전이 있고 영화 관련 봉사 및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

* 문의 : 010-9264-0295

북방선교비전 2010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 11절)



곽선희 목사



최미(ccm가수)

강사: 곽선희 목사(소망교회 원로목사)
특별출연: 최 미(대표곡-나의 등뒤에서, 낮엔 해처럼)
이 옥(자유의 사람, 찬양사역자.)
사회: 김동석 집사(텔런트)

- ◆ 일시 : 2010년 4월 10일 (토) 오후 4시
- ◆ 장소 : 영락교회 베다니홀
- ◆ 주최 : 영락교회 선교부
- ◆ 주관 : 영락교회 제3남선교회
- ◆ 후원 : 북한선교센터/제1,2,4남선교회/제1,2,3,4,여전도회
안수집사회/권사회/사회봉사부/청년부/대학부
북한선교학교수로자연합회/극등방송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제3남선교회

영락화랑



「영원한 생명」

48×48cm 울펠트 염료 먹 아크릴물감

정 필 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회원